

碩士學位論文

중세국어 과생법 연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金孝眞

2010年 2月

중세국어 과생법 연구

指導教授 金 泰 琨

金 孝 眞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년 2월

金孝眞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위 원 : _____ (인)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10년 2월

A Study of Middle Korean Language derivation

Kim, Hyo-Jin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G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Thesis committee, Kang, Yeong Bok, Prof. of Korean education
Kim, Tae Gon, Prof. of Korean education
Choi, Kyu IL, Prof. of Korean education

Korean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중세국어 파생법 연구

金孝眞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金泰琨

이 연구는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파생어의 형성 원리를 밝혀 유형을 설정하고, 그 특질을 밝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일조가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파생법의 유형 중 접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한정하여 다루었다. 먼저 파생어의 유형을 접두사에 의한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 그리고 영접사에 의한 파생으로 나누었다. 접미파생법은 어휘적 파생과 통사적 파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전자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음으로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며, 후자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구조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파생접미사들의 목록과 파생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파생어의 구조와 파생접미사들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하여 어기와 파생어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사와 파생어의 목록작성과 더불어 어기와 파생어 사이의 의미변화, 파생어의 형성과정 및 구조 파악 등의 작업을 통해 중세국어 파생어의 특성과 나아가서는 통시론적 관점에서 국어의 파생법 변천 과정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접두파생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에 있어서 접두파생법은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는 어휘적 파생법만 확인된다. 접두파생법에 의해 파생

되는 품사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다.

Ⅲ장에서는 접미파생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미파생법은 접두파생법과 달리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는 어휘적 파생법만이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통사적 파생법도 나타난다. 접미파생법에 의해 파생되는 품사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가 있다.

Ⅳ장에서는 영접사파생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에 ‘영변화파생’으로 다루었던 것을 접사에 의한 파생의 하나로 다루었다. 영접사파생법에 의해 파생되는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Ⅴ장에서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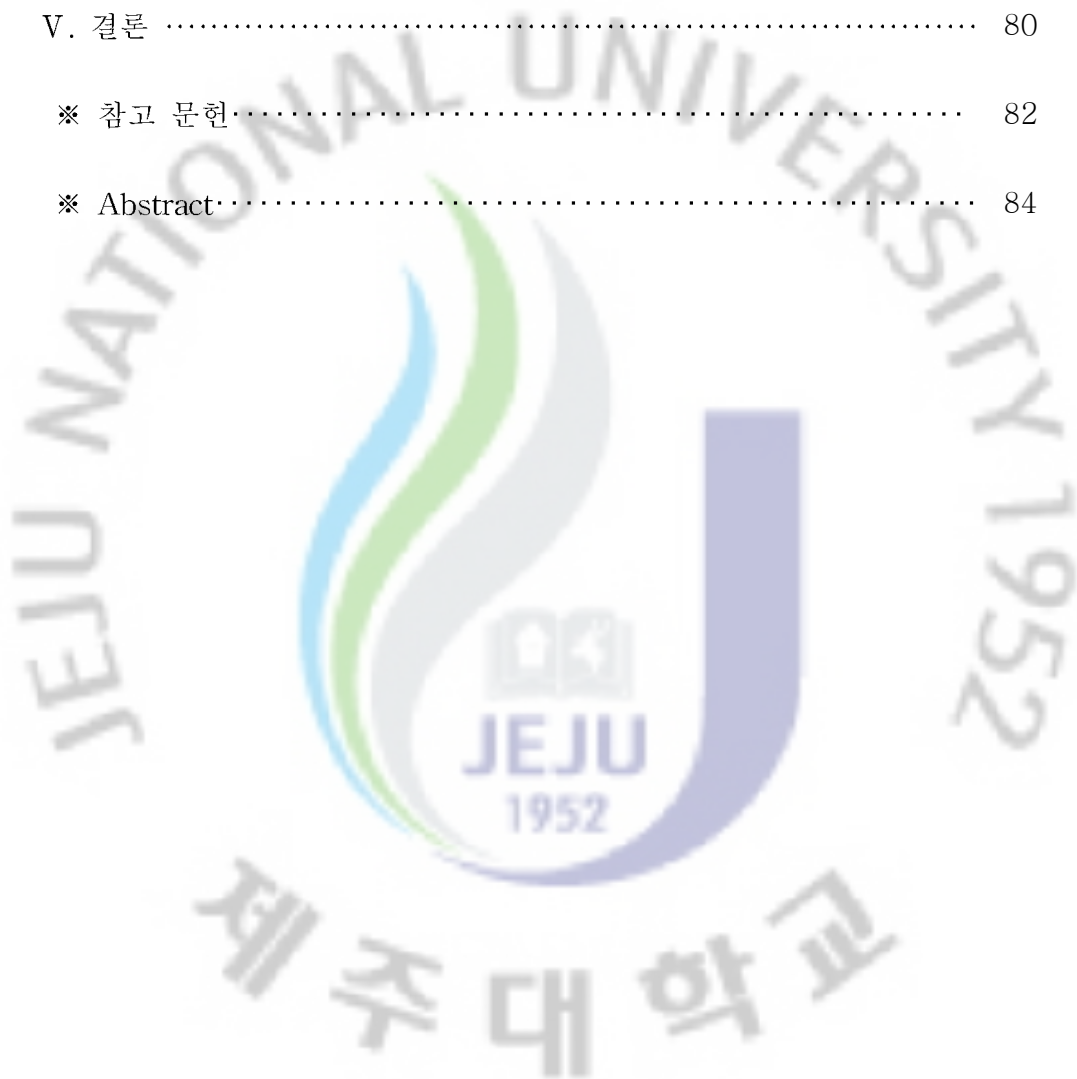


목 차

<국문 초록>

I. 서 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2
3. 선행 연구	4
II. 접두파생법	6
1. 명사 파생법	6
2. 동사 파생법	12
3. 형용사 파생법	17
III. 접미파생법	19
1. 명사 파생법	19
1) 어휘적 파생법	19
2) 통사적 파생법	23
2. 동사 파생법	35
1) 어휘적 파생법	35
2) 통사적 파생법	37
3. 형용사 파생법	49
1) 어휘적 파생법	50
2) 통사적 파생법	50
4. 부사 파생법	57
1) 어휘적 파생법	57
2) 통사적 파생법	58
5. 조사 파생법	70

IV. 영변화 파생법.....	73
1. 동사파생법.....	73
2. 형용사파생법.....	74
3. 부사파생법.....	75
V. 결론	80
※ 참고 문헌.....	82
※ Abstract.....	84



I. 서론

1. 연구목적

국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방법을 단어형성법이라 한다. 단어형성법에 관한 연구는 어떤 어기로부터 새로 생산될 수 있는 신조어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고, 기존의 어휘형태에 변형을 피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단어형성법에 있어서 중세 국어는 큰 의미를 지닌다. 중세국어 이후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단어형성의 원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단어형성법의 기준 유형 또한 중세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¹⁾ 또한 중세의 문헌은 다른 시기에 비해 풍부한 자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본다면 중세국어의 단어형성법 대한 연구는 곧 국어의 단어형성법에 대한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어형성법에는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는 합성법과 접사가 어근과 결합하는 파생법이 있다. 이 중 파생법은 조어법 중에서도 가장 생산적이라 할 수 있다. 파생법은 파생 접사의 위치에 따라 접두 파생법과 접미 파생법으로 나뉘게 된다. 그런데 접두 파생법은 주로 어휘적인 의미를 더해 줄 뿐 파생어의 통사적 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반면, 접미 파생법은 어휘적인 의미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어기의 통사적 범주도 바꾸고 문법적인 속성도 변하게 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어기와의 결합에서 다양한 제약을 보이기도 하므로 그 실현 양상이 접두 파생법에 비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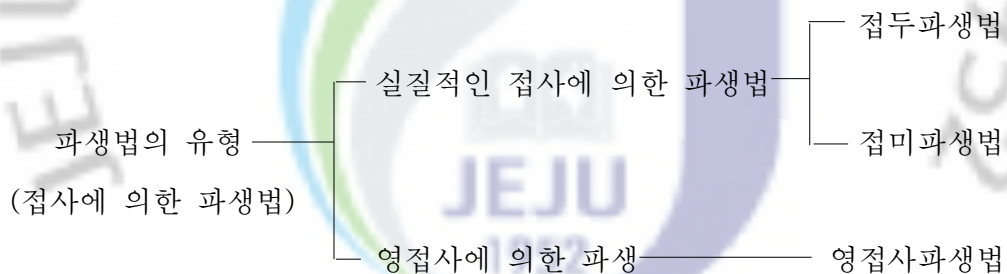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어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세국어를 바탕으로 단어형성법을 확인하고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중세국어에 나타난 파생어의

1) 유창돈(1971), 「語彙史研究」, 선명문화사. 조어법의 기준적 유형이 15세기 이후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단지 지금 말에는 “토>부사”의 특수 유형이 생겨 중세국어에 없던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조어 유형이 중세국어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휘사의 일면인 조어법이 음운사나 형태사보다는 유동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형성 원리를 밝혀 유형을 설정하고, 그 특질을 밝혀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일조가 되도록 함에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중세국어를 연구 대상언어로 하되, 「古語辭典」(남광우著, 1997)을 통하여 파생법의 유형 중 접사에 의한 파생법으로 한정하여 다루었다. 먼저 파생어의 유형을 접두사에 의한 파생, 접미사에 의한 파생 그리고 영접사에 의한 파생으로 나누었다. 접미파생법은 어휘적 파생과 통사적 파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전자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음으로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며, 후자는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구조에 영향을 준다.



파생접사의 목록과 파생어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파생어의 구조와 파생접사들의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파악하여 어기와 파생어 사이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접사와 파생어의 목록작성과 더불어 어기와 파생어 사이의 의미변화, 파생어의 형성과정 및 구조 파악 등의 작업을 통해 중세국어 파생어의 특성과 나아가서는 통시론적 관점에서 국어의 파생법 변천 과정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출전약호>

본문에서 사용된 출전약호는 「古語辭典」의 것을 인용하였다.

약호	문헌명(연도)
簡辟	簡易辟瘟方諺解(1525)
救簡	救急簡易方諺解(1489)
救急	救急方諺解(1466)
救荒	救荒撮要(1554)
金剛	金剛經諺解(1464)
金三	金剛經三家解(1482)
南明	南明集諺解(1482)
內訓	內訓(1475)
楞解	楞嚴經諺解(1461)
翻譯老	翻譯老乞大(1515)
翻譯小	翻譯小學(1518)
法華	法華經諺解(1463)
佛頂	佛頂心陀羅尼經諺解(1485)
四解	四聲通解(1517)
三綱	三綱行實圖(1481)
釋譜	釋譜詳節(1449)
宣賜內訓	內訓(宣祖內賜本)(1475)
宣小	小學諺解(1586)
永嘉	永嘉集諺解(1463)
龍歌	龍飛御天歌(1447)
圓覺	圓覺經諺解(1465)
月釋	月印釋譜(1459)
月印	月印千江之曲(1449)
類合	新增類合(1576)
初杜解	初刑杜詩諺解(1481)
訓蒙	訓蒙字會(1527)

3. 선행연구

전통문법적 연구는 품사체계를 세우는 데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형태적 구조 연구는 품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단어형성법을 형태론에서 다루지 않고 품사론에서 다루었다.

단어형성법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활용어미와 파생접사가 구별되면서 파생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이 이루어진 1960년대 이후라 할 수 있다. 주로 구조·기술언어학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승녕(1961), 「中世國語文法」에서 구조언어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조어론을 줄기와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하였다. 조어론을 독립시켜 분류하였다.

안병희(1965),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에서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형태론을 기술하고 접요파생을 인정하지 않으며 내적변화 파생, 곡용 어간과 활용어간이 동일어형인 영변화 파생을 설정하였다.

강성일(1972), “중세 국어의 조어론 연구”에서 조어론을 다룸에 있어서 부딪히게 될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기술 방법을 밝히면서 중세국어의 단어형성과 굴절(굴곡)을 구명, 현대국어 문법의 체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허웅(1975), 「우리 옛말본」에서 파생법과 굴곡법의 한계를 구조적 환경의 차이 곧 분포의 개방성과 제한성을 파생과 굴절을 구별하는 요체로 인식하고 형태론의 영역을 ‘조어법’과 ‘굴곡법’으로 나누어 조어법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남광우(1962) 「국어학논문집」에서 사동 접미사에 대해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용언의 어간 구조를 밝혔다.

고영근(1974) 「國語接尾辭의 研究」에서 접사를 중심으로 하여 접사의 기능, 형태,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구조주의문법 연구는 어간부와 어미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일과 국어의 활용어미에 대한 구조분석과 인접형식과의 통합관계를 관찰함으로써 이들이 표시하는 문법적 의의를 규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1970년대부터 단어의 생성이라는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파생어 형성을 규칙과 제약으로 나타내며,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의 생산성, 공시성과 통시성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송철의(1977) “派生語 形成과 音韻現象”에서 생성형태론에 입각하여 형태론적 현상과 음운론적 현상을 고려하여 파생범주와 활용범주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운 현상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경우 (1981), “派生語 形成에 있어서의 意味變化”에서 어휘론적 관점에서 파생어 형성에서 동사와 형용사 파생규칙을 여기와 접사의 의미변화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변형생성문법 연구는 단어 형성 과정을 규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음운, 형태, 통사, 의미와의 관계를 시도해 왔으며 특히 음운 작용이 미치는 제약적 영향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이상으로 파생어 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파생어 형성에 있어서 전통문법은 파생과 굴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구조·기술언어학은 분포의 개방성과 제한성을 파생과 굴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식하여 접미사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파생어 형성에 관한 규칙을 설정하는데 음운, 형태, 통사, 의미적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II. 접두파생법

중세국어에 있어서 접두파생법은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는 어휘적 파생법만 발견된다. 접두파생어는 여기에 접두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를 말하는데 접두사는 어기의 뜻만 한정하기 때문에 품사를 바꾸는 접미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생산적인 면에서도 다르다. 품사를 바꾸는 기능이 없으므로 단어의 어기 자체가 품사 결정의 기준이 된다. 접두파생법에 의해 파생되는 품사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다.

1. 명사 파생법

접두사가 명사 앞에 결합되어 새로운 명사를 파생할 때 품사 전성에는 관여하지 않고 의미만 더해 준다.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두사에는 {가불(가온)-}, {갈-}, {글-}, {니-}, {대-}, {댓-}, {독-}, {들-}, {새-}, {소-}, {솟-}, {스-}, {긔-}, {이듬-}, {전-}, {출-}, {춤-}, {한-} 등이 있다.

{가불(가온)-}

· 가불(온)딤(가불-+ 딤)

方便力으로 깊 가불딤 쉬우믈 爲ᄃ야 (月釋 14:80)

낫 가온딤 미쳐 (宣賜內訓 1:40)

접두사 {가불-}은 어기에 붙어 ‘반, 중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갈-}

- 갈범²⁾(갈-+ 범) : 갈범의 뼈 : 虎骨 (東醫 湯液一 獸部)
- 갈외 (갈-+ 외) : 갈외 반 : 蟹 (訓蒙 上 23)

‘갈범’은 보통의 범을 표범과 구별하기 위해 접두사 {갈-}을 붙인 말이다. ‘갈범’은 갈색에 검은 무늬가 있음이 특색이다. ‘갈외’(>가되)는 몸에 무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갈-}은 ‘무늬’가 있음을 표현하는 말로 볼 수 있다.

{글-}

- 글가마괴(글-+ 가마괴) : 글가마괴 아:鴉 (訓蒙 上 16)
- 글거미 (글-+ 거미) : 글거미 쇼:蝸 (訓蒙 上 11)

접두사 {글-}은 일부 동물의 이름 위에 붙어서 ‘배가 희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한다. 이는 현대어에도 이어져 ‘갈가마귀, 갈거미’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세국어 {글-}의 ‘배가 희다’라는 의미가 현대어에 와서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진다. ‘글가마괴’는 ‘글아마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ㄱ’이 ‘ㄹ’ 아래에서 후두유성마찰음 ‘ㅇ’로 교체된 것이다.

{니-}

- 니빨(니-+ 빨)
- 도흔 니빨를 붓가 덩게 햏야 ㅁ슴ㅂ을 울햏며 (救簡 1:86)

‘니-’는 잡곡과 대립되는 뜻을 지닌 말로 ‘니빨>입쌀’을 의미한다. ‘입쌀’은 ‘멥쌀’을 의미하는데 잡곡쌀에 상대되는 말로 아무 것도 섞이지 않은 흰쌀을 뜻한다. 접두사 ‘니-’는 곡식에 붙는 접두사로 현대어에서는 두음법칙의 영향으로 ‘니->이-’로 나타난다.

{대-}

2) ‘갈범’은 ‘갈웁’으로 표기되기도 하는데, ‘갈웁’의 ‘웁’은 ‘범’의 ‘ㅂ’이 ‘ㄹ’과 모음사이에서 /ㄹ/으로 바뀌고, 다시 반모음 /우/로 바뀐 변이형태이다.
*갈범>*갈범>갈웁

· 대뱀(대-+ 뱀)

물 우희 대뱀를 혼 소노로 티시며 (龍歌 87章)

접두사 {대-}가 여기에 붙어 ‘크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대뱀’은 단일어 ‘뱀’과 비교하면 어근 ‘뱀’이 반모음으로 끝난 접두사 {대-}뒤에서 ‘뱀’으로 바뀐 것이다.

{땃-}

· 땃두러기(땃-+ 두러기) : 땃두러기 :老鷹 (訓蒙 上 15)

· 땃무수(땃-+ 무수) : 땃무수 불휘를 사하라 쭈드려 (救急 上 59)

· 땃뻘리(땃-+ 뻘리) : 땃뻘리 : 地鼯 (四解 上 38)

접두사 {땃-}은 ‘크고 역센’의 뜻을 지니며 ‘땃딜위, 땃가치’에도 그 모습이 나타난다. 이들은 현대어의 ‘때질레, 때까치’로 나타나는데 거칠고 강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한다.

{독-}

· 독술(독-+ 술) : 東門 땃기 독소리 것그리 (龍歌 89章)

접두사 {독-}은 여기와 결합하여 ‘작고 어린’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접두사 {독-}이 ‘독술’의 어형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어형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어근과는 결합되지 않는 불규칙적 형태소로 보인다.

{들-}

· 들뻘 (들-+ 뻘) : 들뻘 : 蘇子(訓蒙 上13)

접두사 {들-}은 여기와 결합하여 {춤-}의 반대되는 ‘야생의’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새-}

- 새별(새- + 별) : 새벼리 놓거다 (번로 上 58)

접두사 {새-}는 ‘색깔이 매우 산뜻하다(희고 밝은)’라는 의미를 부여하는데, ‘새매, 새삼’에서도 발견된다. 여기서 {새-}는 관형사처럼 쓰인 듯하나, 뜻을 지닌 접두사로 보아야 한다.

{소-}

- 소밥(소-+ 밥) : 소밭을 아니 먹더니 (宣賜內訓 1:65)

접두사 {소-}는 한자어 ‘素’와 대응되는데, 여기와 결합하여 ‘희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소밥’은 ‘흰밥’ 즉 ‘잡곡이 섞이지 않은 흰쌀 밥’만을 뜻한다.³⁾

{씻-}

- 씻무수(씻-+ 무수) : 씻무수 줍 머고미 쏘 도흐니라 (救簡 6:37)

‘땃무수’의 {땃-}이 ‘크고 역센’이라는 의미를 가진데 비해 ‘씻무수’(>순무)의 접두사 {씻-}은 ‘작으며 둥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스-}

- 스ᄃᆞᆫ(스-+ ᄃᆞᆫ)

스ᄃᆞᆫ 軍馬를 이길씩 흐ᄃᆞᆫ사 …… 모딘 도조ᄃᆞᆫ 자ᄃᆞᆫ시니이다 (龍歌 35章)

접두사 {스-}는 여기와 결합하여 ‘새로 된’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스ᄃᆞᆫ’은 후에 ‘스ᄃᆞᆫ>스ᄃᆞᆫ>스ᄃᆞᆫ>스ᄃᆞᆫ’의 형태변화를 거친다.

{시-}

3) 허용(1975:146),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현대국어에서 ‘맨밥, 맨손’의 {맨-}과 같은 뜻으로 보여진다.

- 식아비(식-+아비) : 식아비 업스면 식어미 늙느니 (宣賜內訓 1: 56)

접두사 {식-}도 {스-}와 같이 어기와 결합하여 ‘새로 된’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식-’의 경우는 현대국어에 오면 ‘시어미, 시아비’에서처럼 ‘시-’의 형태로 남아 있다.

{이듬-}

- 이듬히(이듬-+해) : 이듬히예 쫓 흐오사와 李氏 밥 먹더니 (三綱. 烈12)

접두사 {이듬-}은 어기에 붙어 ‘그 다음’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전-}

- 전국(전-+국) : 열네 낮과 전국 다숫 호블 (救急 上 29)
- 전술(전-+술) : 전술 발 : 醞 (訓蒙 中 21)

접두사 {전-}은 어기에 붙어 ‘군것을 섞지 않은’의 의미를 부여한다.

{출-}

- 출기장(출- +기장) 출기장 툄 : 糝 (訓蒙 上 12)
- 출씩(출-+씩) : 胡餅은 출씩이오 (金三3:51)
- 출콩(출-+콩) : 출콩 완 一云 강남콩 완: 豌 (訓蒙 上12)

접두사 ‘출-’은 어기와 결합하여 ‘쫉쫉 붙도록 끈기가 있는’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출기장, 출밭...’ 등에 나타나며 주로 곡식에 붙어서 ‘메진 것’과 대립되는 의미를 지닌다. 접두사 {출}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출-, 츠, चु-’ 세가지 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출-}을 원형으로 삼아 이들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츠-’는 ‘르’이 탈락된 형태로, ‘측-’은 ‘츠-’에 ‘ㅂ’이 다시 첨가된 형태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은 별개의 것이 아닌 동일한 접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춤-}

- 춤기름(춤-+기름) : 병헌 사르미 아래 춤기름을 브르고 (救簡 2:52)
- 춤빠(춤-+빠) : 춤빠 혼 디 드마 (法華 5:20)

접두사 {춤-}은 여기와 결합하여 {들-}과 반대되는 ‘인공을 잘 들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한-}

- 한비(한-+비) : 한비 사으리로디 (龍歌 67章)
- 한쇼(한-+쇼) : 싸호논 한쇼를 두 소내 자브시니 (龍歌 87章)
- 한숨(한 + 숨) : 늘거이 반드시 그 한숨 소리를 드롬이 잇느니라 (宣小 2:27)

접두사 {한-}은 여기와 결합하여 ‘크다, 많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한쇼’의 경우, 후에 ‘한쇼>황쇼’로 형태변화를 볼 때 ‘크다’라는 의미의 ‘한-’이 ‘수컷’이라는 의미를 더 강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쇼>황쇼’의 변화과정을 ‘크다’라는 의미의 ‘한-’이 ‘쇼(牛)’와 결합되어 형태변화와 함께 ‘수컷’의 의미변화로 볼 수도 있으나 ‘한쇼’에서의 ‘한-’은 본래 ‘크다’와 ‘수컷’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던 것으로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진다.

위에서 살펴 본 명사 파생법에 나타나는 파생 접두사는 대체로 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 비슷한 기능을 가진다. 이는 현대국어는 물론 근대, 중세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관형사와 용언의 관형사형이 그 분포에 있어서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후행 명사와 자유롭게 결합하는데 비하여, 접두사는 큰 제약을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 즉 접두사는 일부의 명사와 결합한다는 제약을 갖는다. 또한 ‘그 내부에 휴지나 다른 형태소의 개입’이라는 기준을 볼 때, 관형사와 접두사는 후행하는 명사와의 사이에 다른 형태소를 개입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차이점을 갖기도 한다. 그리고 접두사는 관형사나 용언의 관형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상의 추상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동사 파생법

접두사가 동사어근과 결합하여 다시 동사를 파생시킨다. 이는 접두사가 품사를 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만을 더해 주는 한정적 구실(부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사로 파생시키는 접두사에는 {가르-}, {결-}, {것므르-}, {넙-}, {더위-}, {테-}, {마-}, {모-}, {묻-, 붙-}, {박-}, {브르-}, {비-}, {엇-}, {저-}, {즌-}, {지-}, {춧-}, {치-}, {티-}, {횃-}들이 있다.

{가르-}

· 가르드되다(가로-+드되다) : 노푼 양지 하늘해 가르드되엿느니 (重杜解 9:32)

접두사 {가로-}는 여기에 붙어 ‘걸쳐’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가르든니다, 가르늘다’에서도 나타난다.

{결-}

· 걸았다(결-+았다) : 흙무적에 좃구리 걸안자 (法華 2:118)

접두사 {결-}은 여기와 결합하여 ‘걸다, 걸티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걸았다’는 ‘걸터았다’를 의미한다.⁴⁾

{것므르-}

· 것므르죽다(것므르- + 죽다)

이 겨집으로 受苦訶야 설위 우르며 불러 것므르주거(佛頂 中6)

4) 허용(1975:137),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결-’을 동사의 어근으로 보면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접두사 {것ㅁㄹ-}는 ‘죽다’에 한정되어 쓰인다. ‘것ㅁㄹ죽다’는 ‘까무러치다’를 의미하는데 ‘것-+ㅁㄹ다’는 ‘거짓으로’라는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보인다.

{넙-}

- 넙놀다(넙-+놀다) : 새들히 모다 넙놀며(月釋 2:27)

접두사 {넙-}은 ‘넙나들다’의 뜻을 가상할 수 있으므로, 현대말의 ‘넙놀다, 넙노닐다, 넙나들다’의 ‘넙-’의 옛꼴인 듯 하나, ‘넙-’은 긴 소리임에 비해서 ‘넙-’은 평성임이 약간 난점이다.⁵⁾

{더위-}

- 더위잡다(더위-+잡다) : 더위자브리 누고 (南明 上 29)

접두사 {더위-}는 어기와 결합하여 ‘손을 높이 올려 당기는’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데-}

- 데뜨다(데-+뜨다) : 다된 데쁜 너기미니 (楞解 1:65)

접두사 {데-}는 어기와 결합하여 ‘감정적 색채’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마-}

- 마ㅁㄹ다(마-+ㅁㄹ다)

마ㅁㄹ 쟈헛 빅성이 올흔 티 嚮티 아니리 업슴은 근로홈이니라 (宣小 4:45)

접두사 {마-}는 어기와 결합하여 ‘수척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5) 허용(1975:137). 현대국어에서 장음은 대개 상성에서 유래했다고 본다.

{모-}

· 모즈라다(모--+즈라다)

값간도 모즈라며 나모미 업스리라 (金三 2:34)

· 못즈라다(못--+즈라다)

도늘 만히 달라 하니 내 지블 프라도 못즈라로다 (二倫 43)

접두사 {모-}는 {못-}의 변형으로 보여지는데, ‘모즈라다’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못-, 분-}

· 못(분)동기다 (못--+동기다)

緣을 못동기야 가져 (月釋 1:3)

欄干을 분동기니 (三綱. 忠7)

접두사 {못(분)-}은 어기와 결합하여 ‘힘주어 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박-}

· 박츠다(박--+츠다) : 어미 간늘 자브며 어미 싸도 박츠니 (恩重 6)

접두사 {박-}도 {못-}처럼 ‘힘주어 세계’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접두사 {못-}과 {박-}의 의미를 보면, ‘힘주어 짝’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갖지만 서로 교체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둘은 어기에 강세의 의미를 첨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브르-}

· 브르돋다(브르--+돋다)

양지 여위여 시들오 싸 브르돋다 사르미 도라보디 아니흐느니(南明 上 30)

· 브르쁘다(브르-+쁘다)

나귀 눈 브르쁘고 (朴解 下 48)

접두사 {브르-}는 여기와 결합하여 ‘숫아 나게’, ‘두드리지게’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비-}

· 비웃다(비-+웃다) : 비우으며 미며 씩요미 나리니 (法華 6:72)

접두사 {비-}는 여기와 결합하여 ‘멀시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비웃다’가 ‘코웃음 치다’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는 한자어 ‘鼻’에서 온 접두사로 보여진다.

{엇-}

· 엇막다(엇-+막다) : 물 겨되 엇마ᄃ시니(龍歌 44章)

접두사 {엇-}은 ‘어긋나게’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이다. 그러나 ‘엇’을 접사가 아닌 부사로 다루고 있기도 하는데 ‘가로, 어긋나다’의 독립된 의미를 지닌 단독형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엇-’은 접두사로 보아야 한다.

{저-}

· 저버리다(저-+버리다) : 불근 義를 저버료니(初杜解 7:28)

접두사 {저-}는 여기와 결합하여 ‘남의 기대에 어긋나게’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지-}(負)의 활용형이었을 듯하나⁶⁾, 다른 예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불규칙적 형태소로 보인다.

{즌-}

6) 그 밑속물 지여버리디 아니흐며 (宣賜內訓 上 31)

· 증벌오다(증--+ 벌오다) : 증벌을 채 : 跣 (訓蒙 下 27)

접두사 {증-}은 어기와 결합하여 ‘함부러 마구’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지-}

· 지불이다(지--+ 불이다)

브르미 부러 竹林國으로 지불여늘 무퇴 올라오는 므퇴예 (月釋 8:101)

접두사 {지-}는 어기와 결합하여 ‘기대다, 의지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춷-}

· 춷들다 (춷--+ 들다)

누르며 다와다 춷들게 흐며 짓기 건너는 여러 이리 잇느니 (楞解 8:92)

접두사 {춷-}은 어기와 결합하여 여기에 강세의 뜻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치-}

· 치잡다(치--+ 잡다)

사스미 흘레흐거든 보고 므스물 몬 치자바 (釋譜 24:26)

· 치햐다(치--+ 햐다)

다리에 떠딜 므를 년지시 치햐시니(龍歌 87章)

접두사 {치-}는 어기와 결합하여 ‘위로’라는 의미, ‘기준점 밑의 것을 기준점으로 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강세의 의미를 어기에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티-}

· 티디르다 : 노푼 버드른 하늘해 ㅅ만 티딜어 프르도다 (重杜解 13:38)

- 티받다(티-+ 받다) : 기쁜 山峽은 2장 길오 티바닷도다 (初杜解 14:4)
- 티소다(티 + 소다) : 淸秀 氣運이 星斗에 티소엣도다 (初杜解 8:13)
- 티티다(티-+ 티다) : 드므며 티티며 느랏다가 떠러디며 (楞解 8:87)

접두사 {티-}도 {치-}와 같이 ‘위로’라는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나, {치-}와 의미 차이가 있다. {티-}는 {치-}와 달리 기준점보다 상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훗-}

- 훗도니다 (훗-+ 도니다) : 여섯 길헤 훗도너 값간도 머므디 못으며 (月釋序4)
- 훗돌다(훗-+ 돌다) : 훗도라 가락오락호야 (永嘉 上 70)
- 훗두르다(훗-+ 두르다) : 淸淨境을 비취면 山林이 훗두르며 (法華 6:68)

접두사 {훗-}은 도는 모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훗-}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 접두사 ‘훗-’ 대신 ‘훗-(훗)’를 대치시켜도 ‘훗-’으로부터 파생된 파생어와 ‘훗-’로부터 파생된 파생어 사이에 의미 차이가 없다(훗돌다:훗돌다). 대치가능성이 있어서 ‘훗(회)-’과 ‘훗(훗)-’를 이형태로 볼 수 있다. 즉 모음교체에 의한 접두사의 이형태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음조화에 따라 어기와 결합한다.⁷⁾

{흐-}

- 흐놀이다 : 2름 우희 고지 흐늘요물 마디 아니홈을 니버 (初杜解 18:6)

접두사 {흐-}는 어기와 결합하여 ‘남을 못살게’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3. 형용사 파생법

7) 송철의(1998:24), “15세기 국어의 파생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교체에 의한 이형태 중 ‘훗(훗)-’만이 나타나는데 이는 근대국어 시기부터 모음조화의 혼란으로 양모음을 갖는 어기에도 접두사 ‘훗-’가 붙으므로 (훗쫓치다, 훗돌다) ‘훗(회)-’가 생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접두사가 형용사어기와 결합하여 다시 형용사로 파생시킨다. 형용사의 접두파생법은 현대국어만큼 많지 않다.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접두사에는 {덧-}, {에-}가 보인다.

{덧-}

· 덧곳다(덧-+ 곳다)

나는 양지 덧곳고 슬히 세요이다 (釋譜 24:35)

물애로 布施 홀씨 이제 와 양제 덧곳다 흐논 뜨디라 (釋譜 24:35)

· 덧곳다(덧-+ 곳다)

모미 디들오 양지 덧구즐씨 (釋譜 24:11)

접두사 {덧-}은 어기와 결합하여 어기에 강세의 의미를 부여한다.

{에-}

· 에굳다 (에-+ 굳다)

知慧 神通力으로 에구든 모딘 衆生을 降服히시느다 (釋譜 11:4)

剛強은 세여 에구들 씨라 (月釋 21:9)

접두사 {에-}는 형용사 ‘굳-’와만 결합된다. ‘에굳다’의 {에-}는 ‘옳지 않으면서 세기만 한’의 뜻인데 다른 예는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접두사가 붙어 동사,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동사와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접두사 중에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기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을 동사나 형용사의 어기로 본다면, 이들 파생어들은 합성동사나 형용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나, 의미와 형태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접두사로 처리하였다.

Ⅲ. 접미파생법

중세국어에서도 현대국어와 같이 파생접미사는 그 수효가 많고, 기능도 어기의 의미를 바꾸거나 품사나 통사구조를 바꾸는 등 매우 다양하다. 국어의 파생어는 접두사보다 접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접미사에 의한 파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접사가 붙음에 따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접사가 붙을 때 의미만 제한을 받고 품사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이다. 전자를 통사적 파생이라 하고, 후자를 어휘적 파생이라 하여 구별한다. 통사적 파생은 대부분 품사를 전성시키나, 어휘적 파생은 품사를 전성시키지 않는다.

1. 명사 파생법

중세 국어에 나타나는 접미사에 의한 명사 파생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어휘적 파생법

(1) 명사 + 접미사 ‘-이’

- 버리(← 벌 蜂) : 버리도 믈츨매 모디로물 머겟느니 (重杜解 5:9)
- 울창이(← 울창 蚪) : 울창이 두 : 蚪 (訓蒙 上 24)
- 프리(← 풀 蠅) : 흐물며 믈슌 後에 믈장 프리 하도다 (初杜解 10:28)

이들은 명사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명사를 형성하는 파생법이다. 본래 명사로서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다시 명사로 파생되었으므로 아무런 통

사론적 차이가 없다. 주로 동물(곤충)과 결합하여 동물(곤충) 명사로 파생되었다. ‘프리’는 ‘플> 프리>파리’의 형태변화를 거친다.

그러나 여기에 특별한 의미자질도 첨가시키지 않고 본래 지녔던 의미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미사 ‘-이’를 파생 형태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파생된 낱말이 본래의 형태와 다른 형태로 문장에서 독립된 기능을 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접미사 ‘-이’를 파생 형태소로 보았다⁸⁾.

(2) 명사 + 접미사 ‘-악/억’

- 쫓각(쫓+ -악) : 쫓각 단 (類合 下. 48)
- 주먹(쭈+ -억) : 소니 제 주먹 쥐면 (永嘉 上 66)
- 터럭(털+ -억) : 터럭기서 輕히니 이시니 (三綱. 忠 25)

접미사 ‘-악/억’은 명사어기에 결합하여 지소적이거나 축소적인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는 그 해당 부분의 축소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소사로 쓰이는 ‘-아기/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명사 + 접미사 ‘-아기/어기’

- 두드러기(두들+ -어기) : 두드러기 은 :癩 (訓蒙 中 33)
- 뺨라기(뺨+ -아기) : 뺨라기 바브로 아히를 對히엿노라 (두해 12:19)
- 스라기(슬+ -아기) : 아므커나 金스라기를 가져 (南明 上 71)

접미사 ‘-아기/어기’는 접미사 ‘-악/억’과 같은 지소사로 보이나 여기에 원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어기와 원형이라는 의미적 상관성을 지니며 동시에 ‘자그마하다’라는 기본 개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접미사 ‘-악/억’과는 다른 원형적 지소사로 볼 수 있다.

8) 석미영(1993:17), “中世國語의 派生法 研究”,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 명사 + 접미사 ‘-아지/야지’

- 막야지(말+ -아지) : 머에 아랫 막야지를 (初杜解 23:36)
- 송아지(쇼+ -아지) : 송아지 독:犢 (訓蒙 上18)

접미사 ‘-아지/야지’는 명사(주로 동물)에 결합되어 ‘짐승의 어린것’을 뜻하는 지소사의 의미를 갖으며 현대국어에서 그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⁹⁾ ‘막야지’는 명사어근 ‘말’이 접미사 ‘-아지’와 결합됨에 따라 ‘말’의 ‘ㄹ’이 탈락되고 ‘-아지’는 반모음 ‘y’가 삽입되어 ‘-야지’로 교체된 것이다.

(5) 명사 + 접미사 ‘-옥/욱’

- 가죽(갓+ 옥) : 가죽 피 : 皮(類合 上 26)
- 거죽(겉+ 옥) : 니불 거죽과 : 被面 (朴新解 2:14)¹⁰⁾

접미사 ‘-옥/욱’은 명사에 결합하여 형태만을 변화시킬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통사론적 기능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단어를 길게 하여 본래의 명사 자체를 분명하게 표현하여 전달하려는 느낌만을 여기에 첨가시킨다.

(6) 명사 + 접미사 ‘-양/영’

- 골(谷)+ 양 →고랑(畎)
- 구무(窟)+ 영 →구멍(穴)
- 벼르(崖)+ 양→벼랑(崖)
- 짜(地)+ 양→쌍(地)

9) 송철의(1993:77), 그러나 현대국어에서 ‘속아지, 목아지’의 경우에는 접미사 ‘-아지’는 ‘지소적인 의미’보다는 ‘비칭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10) 예를 들기위해 18세기 문헌을 참조하였다. 朴新解=朴通事新釋諺解(1765)

접미사 ‘-양/엉’은 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와 결합되는 것이 특징이다. 어기와 결합할 때는 어기의 발음이 자음일 경우 연음되어 소리가 나지만, 모음일 경우 발음을 탈락하고 난 후 결합을 한다.

어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구멍, 고랑’에서는 본래의 명사 어기의 의미보다 축소화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7) 명사 + 접미사 ‘-바지/바치¹¹⁾’

- 노릇바치(노릇+ -바치) : 여러 노릇바치로 흔놀이거든 (飜老 下54)
- 성냥바지(성냥+ -바지) : 성냥바지와 흥정바지왜라 (楞嚴 3:88)
- 흥정바지(흥정+ -바지) : 흥정바지 보비 어더와 바티사¹¹⁾며 (月釋 2:45)

접미사 ‘-바지/바치’는 본래 명사이나 접미사화한 경우이다. ‘기술인’을 뜻하던 것이 직업적인 특성을 갖는 명사와 결합하여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접사로의 특성을 갖는다. ‘-바지/바치’는 음성적 이형태로 현대어에서는 ‘장사아치, 동량아치’의 형태 속에 변천하여 존속하고 있다.

(8) 명사 + 접미사 ‘-질’

- 부체질(부체+ -질) : 부체질 아니¹¹⁾며 (宣小 2:64)
- 불무질(불무+ -질) : 산양에서 불무질하고 (初杜解 8:65)

접미사 ‘-질’은 어떤 관습적인 행동이나 직업적인 행동을 표시한다. 명사와 결합되어 행위 명사를 파생시키는데 현대국어에서도 생산성이 높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질’이 결합되어 파생된 행위 명사들은 별로 좋지 못한 의미를 갖는 것이 많고, 그 어기에 ‘-질’이 결합됨으로써 더욱 비하하는 의미가 강해지며, 대개는 그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미를 갖는다.

11) 고영근(1987:192),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접미사 ‘-바지/바치’는 현대국어의 접미사 ‘-장이’에 해당하는데 중세국어에서도 명사에 붙어 붙기 때문에 접사의 성격이 강하지만 ‘匠 은 바지라, 바지로 이’와 같이 자립해서 쓰이기도 하고 뒤에 접사가 오는 일도 있으므로 합성법으로 본다. .

위의 예들은 도구명사를 어기로 하여 파생된 파생어들로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어떤 행위를 의미한다.

(9) 명사 + 접미사 ‘-내, -들ㅎ, -회’

- -내 : 아마님내 피습고 누의님내 더브러 (月釋 2:6)
- -들ㅎ¹²⁾ : 이 사름들히 다 神足이 自在ㅎ야 (釋譜 6:18)
- -회 : 저희 닐오디 梵夫의 이빅로셔 나라 ㅎ고 (月釋 2:46)

접미사 ‘-내, -들ㅎ, -회’는 모두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되어 그 명사의 복수형이나 그 명사가 속해 있는 부류를 총칭하는 명사를 파생시킨다.

2) 통사적 파생법

(1) 명사 + 접미사 ‘-님’

- 아바님 (아비+(아)님)
아들님이 나샤 나히 닐구비어늘 아바님을 무르시시니(月釋 8:84)
- 어마님 (어미+(아)님)
어마님 드르신 말 엇더ㅎ시시니(龍歌 90장)

접미사 ‘-님’은 존칭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손윗사람이나 높이고자 하는 대상 뒤에 붙는다. 접미사 ‘-님’은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휘적 파생이라 볼 수도 있지만 명사와 결합하여 존칭을 나타내는 명사를 파생시키면서 어기와의 결합 시 서술어에 주체높임 선어말어미 ‘-시’의 삽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통사

12)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근에 와서는 복수의 ‘들ㅎ’이 명사구에 붙는다고 하여 보조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적 파생이라 볼 수 있다. 접미사 ‘-님’은 명사와 결합 시 어간말음이 ‘ㅣ’모음이면 ‘ㅣ’가 탈락되고 ‘-아-’가 개입하는 현상을 보인다.

(2) 동사 + 접미사 ‘-이’

접미사 ‘-이’는 동사어간과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킨다. 중세국어에서 이러한 용례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생산적인 접미사라고 볼 수 있다.

동사어간으로부터 명사를 파생시키는 기능을 갖는 ‘-이’는 중세국어 이래 가장 생산적인 명사파생 접미사로 간주되어 왔고 현대국어에서도 여전히 생산적인 파생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단일형태의 어간을 명사화하는 데는 생산력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

동사어간에 접미사‘-이’가 결합되어 명사로 파생된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단일어에 붙는 경우

· 노리(← 놀다)

들 상완 흘 노리 흐져 (飜朴 上24)

가줄 봄 업스며 이쇼니 노라 (金三 3:1)

· 쓰서리(← 쓰설다)

손 안젯는 位에 오직 쓰서리뿐 흐더라 (初杜解 8:55)

아츨미어든 드러가 쓰설어늘 아비로흐여 쯔 내조차늘 (飜小 9:22)

· 사리(← 살다) :

生計 사릿 이를 묻디 아니커시늘 (宣賜內訓2下7)

몇 間디 지비 사르시리잇고 (龍歌 110章)

13) 송철의(1990), “파생어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99권, 국어국문학회. 현대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이, 놀이, 떨이, 다듬이, 마무리, 물이, 떡이, 벌이, 풀이, 더듬이, 흔들이, 빼돌이... 등과 같이 단일 형태소 동사 어간으로부터 ‘-이’에 의해 새로이 형성되는 파생명사는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 이바디(← 이받다)

풍뎡며 이바디며 (飜小 10:23)

그 안해 밥을 이바도되 (宣小 4:34)

· 지시(← 짓다)

글 지시와 글 수묵로 늑미게 보내^느닐 보고 (宣賜內訓 1:29)

간대로 짓는 凶이 드외리라 (法華 6:145)

· 하리(← 할다)

하리 能히 사르물 함는 전츠로 (楞解 8:93)

다슴어미 朱氏 아비그에 하라 母常 쇠쫓츠이거늘 (三綱. 孝17)

② 합성어에 붙는 경우

· 거름거리(←거름걷다) :

거름거리 더디 아니^ㅎ시며 (月釋 2:57)

· 사롬사리(←사롬살다)

사롬사리아 어느 시러곰 니르리오 (重杜解 1:7)

· 아기나히(←아기낳다)

집지시를 처^ㅎ삼 ㅎ니 그제사 아기나히를 始作^ㅎ니라 (月釋 1:44)

· 죽사리(← 죽살다)

구우러 히도는 죽사릿 바르래 나고져 홀딘덴 (南明 上12)

· 흐르사리(← 흐르살다)

흐르사리 유(蟒) (訓蒙 上23)

· 회도디(←회돋다)

四月八日 회도디예 (月釋 2:35)

이상의 예들이 동사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킨다. 이들은 크게 단일어에 붙는 것과 합성어에 붙는 것으로 나타난다.

‘죽사리’는 여기서 비통사적인 합성어 {죽-+살-}이며 ‘회도디’는 직접 구성 성분은 {회 +도디}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돋+이}로 나누어지는데 ‘아기나히’도 같은 방식으로 분석된다. ‘거름거리, 사롬사리’는 {파생명사형 + 동사어간}의 합성어기에 ‘-이’가 첨가되어 명사로 파생된 형태이다.

동사에서 명사를 파생시키는 가장 생산적인 접미사 ‘-이’는 위의 예들을 통해 본 바와 같이 어기의 말음이 자음일 때만 결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개 [+ 행위]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3) 동사 + 접미사 ‘-음’

접미사 ‘-음’은 동사 어간에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이 접미사는 어기의 조건에 따라 여러 개의 이형태를 갖는다. 즉 ‘-ㅁ’과 ‘-음’, ‘(-오/우)ㅁ’의 이형태를 갖는데, 이들 접미사의 기본형을 ‘-음’으로 잡는다면, ‘-ㅁ’은 ‘-’탈락, ‘음/음’은 모음조화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음/음’은 ‘-오/우’의 개재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음’으로 대표되는 명사파생 접미사는 ‘-ㅁ’, ‘-음’, ‘-음/음’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① 동사어간 + 접미사 ‘-음’

· 거름(←걸다 步)

거름을 니어 뼈 올오디 (宣小 2:69)

· 그슴(←긋다 劃)

頭數는 수 그스미라 (楞解 4:103)

· 어름(←얼다 氷)

몹겨리 어름 어러 니름 곤흐니라 (南明 下58)

· 여름(←얼다 果)

나뭇가지에 흘러 프른 여름 혜옥 (初杜解 18:3)

② 동사어간 + 접미사 ‘-음’

· 믱춤(←못다 終)

萬物의 처심 일며 믱춤 이는 짜히라 (法華 3:161)

· 사름(←살다 生)

사름 뜨디리잇가 (龍歌 15章)

③ 동사어간 + 접미사 ‘-口’

· 사흙(←사호다 鬪)

賊難과 사흙과 녀느 一切 厄難흔 짜해 (楞解 7:56)

서르 사화 섹르면 곧 사디 문흐느니라 (救急 上9)

· 심(←식다 漏)

樹林과 심과 못과논 (楞解 3:18)

식는 자내 물 브스며 (楞解 6:106)

· 슝(←꾸다 夢)

슝 곡도 몹더폼 그리메 곤흐며 (金剛 下151)

겨티 먼 슝을 소니 꾸물 꾸엿거늘 (金三 3:27)

· 험(←혜다 計)

다 늦힌 혜물 니르와다 (楞解 10:11)

東과 西와를 모도와 혜언대 (楞解 3:4)

④ 동사어간 + 접미사 ‘-음/움’

· 우름(←울다 泣)

孝道 흥 아들 우루를 슬피 너겨 드르샤 (龍歌 96章)

사름곳 보면 슬허 우로물 그지업시 흐리니 (楞解 9:69)

· 우숨(←웃다 笑)

말슴과 우수물 넌즈시 흐티 호라 (初杜解 9:6)

시혹 니 내야 우거나 (月釋 21:89)

· 조오름(←즈올다 眠)

엇데 시러곰 놀애 브르며 조오로물 흐들히 흐리오 (重杜解 6:36)

물어더 지여셔 조오라 씩디 몬호라 (重杜解 1:50)

이상의 예들은 동사 어간에 접미사 ‘-음’이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켰다.

(ㄱ), (ㄴ), (ㄷ)는 각각 ‘-음, -음, -口’이 결합된 것으로 동명사형과 접사리 구별이 된다. 그러나 (ㄹ)의 예는 ‘-오/우’를 앞세워 있기 때문에 동명사형과 형태상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사적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능상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거름’의 경우는 ‘걸다’가 ‘ㄷ 불규칙 동사’이므로 ‘ㄷ’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날 때 ‘ㄹ’로 변한 뒤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었고 접미사 ‘-口’이 결합되어 파생된 ‘잠’은 ‘즈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지나 ‘즈다’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잠’과 의미상의 유연성이 있는 ‘자다, 寢’을 그 어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동사 + 접미사 ‘-암/엄’

접미사 ‘-암/엄’에 의해 파생된 파생명사도 ‘-음’과 같이 용언을 어기로 한다. 주로 동사어간에 결합되어 어기가 갖는 행동의 결과물이나 그 결과를 나타내는 행위명사를 파생시킨다.

- 구지락(구진--+ -암) : 상네 구지라를 니부딴 (法華 6:80)
- 구지럼(구진--+ -엄) : 이 야흐로 여러 희를 상네 구지럼 드로딴 (釋譜 19:30)
- 무덤(문- + -엄) : 무더멧 神靈을 請호고 (釋譜 9:17)
- 므참(못--+ -암) : 긴 바물 비로서 므참직 호도다(初杜解 11:43)
- 주검(죽--+ -엄) : 남지니 주검 베여 城 미딴서 우니거든 (金剛. 烈3)

위의 결합관계를 보면 어기가 모두 자음으로 끝나고 있으며 어기와의 모음조화에 따라 ‘-암/엄’이 선택되었다. ‘무덤’과 ‘주검’은 동사어기에 ‘-엄’이 붙어 파생된 것으로 현대국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일형태의 파생이다.

그런데 명사로 파생될 때 같은 의미를 갖는 이중형태의 파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구지람’이나 ‘므참’의 경우가 그러한데 ‘므참’의 경우 그 어기를 ‘못’로 보면 접미사 ‘-음’이 붙은 ‘므춤’과 의미는 같으나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형태 ‘므춤 : 므참, 구지람 : 구지럼’이 동시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한 어기에서 명사로 파생될 때 반드시 단일 형태로만의 파생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파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아진다.

(5) 동사어간 + 접미사 ‘-개/계’

- 놀개(놀+ 개) :奮은 새 놀개 티고 썰리 놀 씨라 (楞解 9:30)
- 돕계(돕+ 계) : 곧 돕계를 단즈브니라 (釋譜 23:23)
- 벼개(벼 + 개) : 붉근 벼개 노코 흰쇼 메우니 (法華 2:73)

동사어간에 접미사 ‘-개/계’가 결합되는 경우 특이한 변이형태로 접미사 ‘-개’

의 ‘ㄱ’이 ‘ㄹ’아래에서 ‘ㅇ’으로 교체되어 ‘-애/에’의 형태가 나타난다. 즉 ‘ㄹ’받침 밑에서 ‘-개/게’가 ‘-애/에’로 교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늘개, 늘애’의 경우는 동시대에 공존하므로 접미사의 교체가 수의적임을 알 수 있다. ‘-개/게(-애/에)’의 분포는 모음 조화에 부합되어 나타난다. ‘늘개’는 ‘늘’에 ‘-개’가 붙고 ‘뜯개’는 ‘뜯-’에 ‘-게’가 붙은 것은 어간 말모음의 양상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한 것이다.

(6) 동사 + 접미사 ‘-기’

· 글위뜨기(글위뜨--+ -기)

만리엿 글위뜨긴 껍俗이 혼가지로다 (初杜解해 11:14)

· 물보기(물보--+ -기)

차바늘 머거도 自然히 스러 물보기를 아니하며 (月釋 1:26)

접미사 ‘-기’는 용언 어기와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접미사 ‘-기’는 어기와의 결합되는 과정에서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으나, ‘-기’는 대부분 어간 말음이 모음인 용언과 결합한다.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어간말음이 자음인 경우에 결합하는 현상에 상보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용언의 어기에 ‘-기’가 첨가되어 명사를 파생하는 조어 방식은 주로 동명사 형성에 관여하며 어기에 {+ 행위}의 의미자질을 부여한다. ‘기’접미사는 중세국어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근대국어에 와서 일반화되었다.

(7) 동사 + 접미사 ‘-악/역’

· 밧ㄹ락(밧--+ -꺠+ -악)

이 다홍비체 다솟 밧ㄹ락 가진 썩 업슨 룡을 슈질헝니는 (飜朴 上14)

· 가락(갈--+ -악)

밧 흔 가라개 니르러 (法華 6:160)

‘밧ㄴ락’만 본다면 합성어이다. 먼저 동사어간 ‘굴-’에 접미사 ‘-악’이 결합되어 ‘ㄴ락’으로 파생된 연후에 형성된 어휘이다.

접미사 ‘-악/억’은 지소적이거나 축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살펴본 지소사 ‘-아기/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8) 동사 + 접미사 ‘-아미/어미’

- 꺾도라미(꺾돌+아미) : 꺾도라미 술 : 蟬 (訓蒙 上23)
- 드라미(들+아미) : 주우린 드라민 (初杜解 20:24)

접미사 ‘-아미/어미’의 경우 그 사용 범위가 넓지 않으나, 동사의 어간이나 부사(의성어)에 결합되어 {+ 동물} 의미자질을 여기에 부여한다.

한편, 이 접미사는 ‘드라미 → 드람이(物譜), 꺾도라미 → 귀쪼람이(物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암+이’의 이중구조로도 볼 수 있다.¹⁴⁾

(9) 형용사 + 접미사 ‘-의’

- 더휘(덜+ -의)

더휘 치휘로 설버하다가 내 일후믈 드리 닛디 아니햏야 (釋譜 9:9)

더위 더위면 사름을 젓바누이고 (救簡 1:33)

- 치휘(칠+ -의)

모기 벌에며 더휘 치휘로 설버하다가 내 일후믈 드리 닛디 아니햏야 (釋譜 9:9)

치위 : 한 치위와 구든 어르미 (楞解 8:82)

14) 석미영(1993:33)

어근이 유성음 사이에서 ‘덜-, 칠-’으로 바뀔에 따라 ‘치위’와 ‘더위’는 각각 ‘칠-’과 ‘덜-’에 접미사 ‘-의’가 결합한 형태가 ‘치훤, 더훤’의 형태를 거쳐 ‘치위, 더위’로 변화한 것이다.

‘치훤, 더훤’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세국어에서는 형용사어간 ‘칠-,덜-’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칠-, 덜-’에 접미사 ‘-의’가 결합되면 ‘치훤, 더훤’이 될 것인데 여기서 ‘β>w’의 공식이 적용되어 ‘치위, 더위’가 된다.¹⁵⁾

중세국어에서의 ‘-의/의’는 형용사 어간으로부터 척도명사를 파생시키는 파생 접미사였다. 이 파생접미사 ‘-의/의’가 근대국어를 거쳐 오면서 ‘-이’로 변화하였다. 접미사 ‘-의/의>-이’의 변화는 ‘-의/의>-의>-이’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먼저 ‘-의/의’가 ‘-의’로 통합이 되었고 ‘-의>-이’의 변화는 음절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로 볼 수 있다. 현대국어에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하향이중모음인 ‘의’는 중세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나 근대국어로 오면서 음절두음으로 자음을 갖지 못하는 제약을 갖게 되어 음절두음으로 자음을 갖던 모든 ‘의’들이 단모음 ‘이’로 바뀌었다.

(10) 형용사 + 접미사 ‘-음’

형용사어간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명사로 파생시킨다. 이러한 예는 동사어간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예보다 훨씬 적다.

· 게을음(←게을다 懶)

내의 게을우미 이 眞性인디 아늑니라 (두해 10:5)

· 깃뵤(←깃브다 喜)

利益드외여 깃부믈 뵤야 (釋譜 19:3)

15) 송철의(1993:36), 중세국어에서 ‘위’는 [wi]가 아니라 [ui]이었고 ‘브’에 ‘β>w’의 공식이 적용되면 ‘w’와 ‘-’가 통합하여 ‘-[u]’로 된다. 그러므로 ‘치훤, 더훤’은 ‘치위, 더위’가 ‘치위, 더위’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의 과도기적 형태이다.

· 슬픔(←슬프다 悲)

즈른 가짓 슬푸미(初杜解 8:34)

접미사 ‘-음’이 형용사 어간에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예는 동사어간에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예보다 적다. 따라서 접미사 ‘-음’계는 동사의 어간에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경우가 더 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용언어기에 접미사 ‘-음’이 결합되어 명사를 파생시키는 ‘-음’의 명사파생은 매우 생산적이다.

중세국어에서 파생명사 현대국어와 달리 동명사와 구별된다. 파생명사가 ‘용언어기 + (으/으)ㅁ’의 형식을 갖는데 비해 용언의 명사형은 용언의 어간에 반드시 ‘-오/우’를 개입시킨다. 동사어간 ‘열(實)’에 ‘-음’이 첨가된 ‘여름(果)’은 파생명사이고 ‘-음’이 연결된 ‘여름’은 동명사가 된다.

이와같이 중세의 국어에서는 파생명사와 동명사는 선어말어미 ‘-오/우’의 개재에 따라 분명히 구별되었다. 그런데 동명사 형성에 관여하던 ‘-오/우’가 점차 혼동되기 시작하여 ‘-으/으’ 대신 나타나기도 하며 후에 명사 파생에도 관여하게 된다.

근대 국어에서 선어말어미 ‘-오/우’의 소멸로 이와 같은 구별은 없어지고 ‘-(으/으)ㅁ’이 명사 파생과 동명사 형성의 두 기능을 모두 갖게 되었다. 그래서 둘의 형태적 구별이 어려워졌고, 단지 통사론적 기능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파생명사는 체언이므로 관형사나 관형어의 꾸밈을 받고 동명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어기 말음이 모음일 경우 ‘-ㅁ’이, 그리고 자음일 경우에는 어기 말음절이 모음과 접미사 ‘-음/음’, ‘-음/음’이 각각 모음조화에 부합되도록 분포되고 있다.

(11) 형용사+ 접미사 ‘-이/의’

· 기릭(길+ 의) : 기릭 너비 正후ㄴ티 二千由旬이며 (法華 1:85)

· 기릭(길+ 이) : 혼 줌 기릭예 견주워 배혀 (翻朴 上38)

- 기궤(궤+ 의) : 기궤 여퇴 기니 다르니 되디 못허리라 (飜朴 上 67)
- 기궤(궤+ 의) : 四方 가운데 싸홀 꼭디 기궤 석 자히오 (簡辟 3)
- 너뵤(넙+ 의) : 혼 기쟝 너뵤 分이 오 돈 허나히 文이라 (永嘉 上 38)
- 노궤(뵤+ 의) : 석박 빙에 우히 니르니 노궤 가히 일천 자히라 (동신속三綱 烈 1:11)¹⁶⁾
- 노궤(뵤+ 의) : 願 혼든 노궤 예 자만 혼 무리 등어리 (重杜解 12:16)
- 여퇴(열+ 의) : 기궤 여퇴 기니 다르니 되니 못허리라 (飜朴 上 67)

접미사 ‘-의/의’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모양이 없는 척도명사를 파생시킨다. 모든 음운론적 환경에 두루 쓰이는데 특징적인 면은 ‘-의/의’가 어간 말모음과의 조화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어기에 모두 결합되어 동시대에 나타난다는 점이다. 또 이들은 서로 의미상의 변환도 없다.

이 접미사는 현대로 오면서 ‘의/의→이’의 과정을 겪는데 이는 ‘·’의 소실에 따라 ‘의’로 통일되었다가 명사 파생접미사 ‘-이’의 높은 생산성에 밀려 ‘-이’로 변환 것으로 보여진다.

(12) 관형사 + 접미사 ‘-엄’

- 처섬(춧+ -엄)

또 金剛心을 니르와다 처섬부터 (月釋 2:62)

관형사에 접미사 ‘-엄’이 결합되어 명사로 파생되었다. 관형사 ‘춧’에 접미사 ‘-엄’이 결합되자 ‘ㅅ’이 ‘ㅌ’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부사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시간성을 지닌 파생명사로 사용된다.

(13) 부사 + 접미사 ‘-이’

16) ‘뵤+의’ 노궤가 되는 예를 중세시기의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없어, 17세기 문헌을 인용하였다.

- 곯고리(곯골+이)(鶯) : 수프렛 곯고리는 (初杜解 20:27)
- 개고리(개골+이)(蛙) : 개고리 와(蛙) (類合 上 15)
- 밭야미(밭얌+이)(蟬) : 나뭇 밭야미 소리를 듣노라 (初杜解 20:8)
- 부형이(부형+이)(鵞) : 부형이 : 鵞鷓 (釋譜 下27)

위의 예들은 상징 부사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명사를 파생시킨다. 이들 파생어는 모두 의성어나 의태어의 어근에서 파생된 어휘들이다. 이들 파생명사들은 대체로 동물명을 지칭하는 명사가 되는데, 이는 동물의 울음소리나 모양을 가지고 그 동물의 명칭을 만드는 것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형부형(부사)>부형(명사)>부형이(명사)’에서 상징부사 어근이 그대로 명사로 되고 여기에 접미사‘-이’가 연결되어 다시 명사로 파생되는 것이다.

2. 동사 파생법

중세 국어의 접미사에 의한 동사 파생법에도 어휘적 파생법과 통사적 파생법이 모두 나타난다. 중세 국어의 동사 파생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어휘적 파생법

(1) 강세 접미사

강세 접미사는 특별한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사어기에 붙어 강세의 의미를 지니게 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강세의 의미 자질을 보이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어기가 된다.

{-랄-}

- 내받다 : 金色 불홀 내바드샤 (釋譜 23:39)
- 니르받다 : 劫은 時節이니 時節에 모던 … 罪業을 니르바들 씨라 (月釋 1:16)
- 벗기왈다 : 흰 곳가를 ㄹ ㄹ 두들게 벗기와뎃도다 (初杜解 7:21)

‘니르받다’는 ‘니르-’에 힘준의 의미를 더하는 {-받-}이 붙었는데 ‘-받-’은 ‘벗기왈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왈-’으로 변하였다. {-받-}은 어기 말음이 모음인 것에 결합되어 어기의 뜻을 강조해 주는 강세형 접미사로 쓰였다.

{-히려-}

- 내히려다 : 豆흔 마음을 내히려스븐니 (月印 上26)
- 니르히려다 : 어미 마조 가 손 자바 니르히려 盟誓를 버기니이다 (月釋 23:66)
- 도르히려다 : 모굴 도르히려 오즘 누는 짜홀 할흐니 (釋譜 11:25)
- 주리히려다 : 蓐 ㄴ죽흐야 주리헛던 니피 니르왈고 (初杜解 18:9)

접미사 {-히려-, -혀-}는 원래 동사어간 ‘히려-(引)’에서 온 것으로 처음에는 실사였으나, 위의 예들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강세의 구실 밖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쁘다-(쁘)}

- 거슬쁘다 : 구든 거슬쁜 ㅁ스물 그치게 흘씩 (金剛 上35)
- 마초쁘다 : 經詳을 마초뿐 (楞解 9:90)

접미사 {-쁘(쁘)-}는 ‘織, 作’의 뜻을 가진 실사로서의 뜻이 강하게 남아 있으나 ‘마초쁘다 : 마초다’, ‘거슬쁘다 : 거슬다’는 의미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쁘(쁘)-’는 어기의 뜻을 강조하는 강세 접미사로 보여진다.

{-티-}

- 그치티다 : 千差를 그치터 안즈샤 (金三 2:3)

- 내티다 : 겨집 나 날굽 가짓 내티요미 잇고 (三綱. 烈2)
- 드위티다 : 萬行을 드위터 브려 서르 올타 외다 흐느니 (永嘉 上45)
- 펠티다 : 곳 펠터 도라가야 (三綱. 孝33)

접미사 {-티-}는 현대국어의 {-치-}의 직접적 소급형으로 구개음화된 ‘-치-’와 함께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많이 쓰인다. 동사어간에 결합되어 그 뜻을 강조해 주는 강세형 접미사이다.

2) 통사적 파생법

(1) 사동 및 피동 파생법

가. 사동접미사

사동접미사를 통하여 파생어를 형성할 경우 통사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그 문장에 의미를 첨가 시킨다. 사동접미사에는 어기를 모두 ‘~하게 하다’로 바꾸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사동접미사에는 ‘-이(ㄱ, 기, 히)계, -오(우)계, -이오계’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사동접미사 ‘-이-’계

사동접미사 ‘-이-’계는 선행하는 어간 말음에 따라 네 가지의 이형태, ‘-이-, -히-, -기-, -ㅣ-’ 설정할 수 있다. 어간 말음이 ‘ㄱ, ㄴ, ㄷ, ㅌ’이면 ‘-기-’가 결합되고 어간말음이 ‘ㄱ, ㄷ, ㅌ, ㅈ’이면 ‘-히-’가 그 외의 자음이면 ‘-이-’가 결합된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는 ‘-ㅣ-’가 결합된다.

- 거스리다(←거슬다)
- 流를 거스리거든 (楞解 8:51)
- 天意를 小人이 거스리 (龍歌 99章)

· 건내다(← 건나다)

더 ㄴ새 건내쇼셔(月釋 8:99)

生死 바르래 건나물 니르시니 (法華 1:109)

· 기우리다(← 기울다)

子貢이 술위 툇고 蓋 기우리 (南明 上30)

기우리 가디 아니호려 ㅎ야 (楞解 10:60)

· 기피다(← 길다)

바르래 ㅅ 업겨늘 녀토시고 쯤 기피시니 (龍歌 20章)

물 깊고 ㅅ 업건마른 (龍歌 34章)

· 길이다(← 긴다)

우몯르를 ㅎ르 五百 디위웁 길이더시니 (月釋 8:91)

도를 자바 나가 물 기러 (宣賜內訓2下 76)

· 노기다(← 녹다)

얼우시고 쯤 노기시니 (龍歌 20章)

되히여 돌히여 다 노가디여 (月釋 1:48)

· 놀이다(← 놀다)

밤낫 겨퓷 이셔 모기 놀이며 (三綱. 孝31)

虛空으로 느라오디 아니코 (釋譜 23:40)

· 맞디다(← 맞드다)

父子를 一定 ㅎ야 家業을 오로 맞더 (法華 2:244)

天下를 맞드시릴씩 (龍歌 6章)

· 물리다(←므르다)

七年을 물리져 흐야 出家를 일우니 (月印 上64)

이 화리 질동이 므르니 허디 어렵다 (飜老 下31)

· 물기다(←몹다)

막스물 물기샤 흔 것도 업시 뷔샤 사디 아니^ㅎ시며 (月釋 1:18)

물근 거우루 곧^ㅎ야 여러 가짓 양직를 잘 나톨 씨라 (月釋 1:34)

· 셰다(←셔다)

建立은 셰연 둘 시라 (南明 上6)

아바넝 뒤헤 셔샤 (龍歌 28章)

· 올이다(←오르다)

미리 나는 짜히 이쇼^ㅁ로 쥬쳐 올이노라 (救荒 7)

돌히 어즈러운 짜헤 구륜 氣運이 올엇고 (두해 6:48)

· 재다(←자다)

저기 머물워 흐룻밤 재시니 (六祖 中102)

ㄹ^ㄹ ㄹ^새 자거늘 (龍歌 67章)

· 홀리다(←흐르다)

忽然히 눅므를 비 디^ㅅ 홀리거시닐 (月釋 8:92)

너를 보내노라 눅므를 여러 가로로 흐르케 우노라 (初杜解 8:37)

위의 예에서 보면 사동 접미사 ‘-이-’는 어기의 말음에 따라 ‘-i-’실현되며, 어기의 말음이 ‘ㄱ’이거나 ‘ㅎ’을 포함한 유기음 ‘ㄷ, ㅌ, ㅌ’일 경우에 ‘-ㅣ-’로 나타난다.

사동접미사 ‘-이’는 주로 자음에 연결되는데 이 경우 연결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ㄹ’이 말음일 경우 연결될 경우와 분철될 경우가 있다. 분철될 경우의 ‘-이-’

는 단순한 모음이 아니라 ‘-기’에서 ‘ㄱ’이 탈락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물이다, 올이다, 흘리다’와 같은 ‘ㄹ/르’ 규칙 동사에서는 ‘으/으’가 탈락하고 ‘ㄹ’이 앞 음절에 붙고 ‘ㄹ’이 첨가되고 그 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다. 이 경우는 ‘ㄷ’ 불규칙 동사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양상을 보인다.

‘건내다, 세다, 재다’와 같이 모음으로 끝난 어기에 ‘-이-’가 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음에 결합될 때는 두 모음이 결합되어 형태상 이중모음을 형성한다.

② 사동접미사 ‘-히-’

용언과 결합하여 사동을 나타내는 접미사이다. 대체로 어간 말음이 ‘ㄱ, ㄷ, ㅂ, ㅈ’인 경우에 쓰여 격음의 형태를 만들고 있다.

· 글키다(←굽다)

아히로 흰히 등어리 글키고 (初杜解 15:4)

브라와도 조닐이 굽디 말며 (宣賜內訓 1:50)

· 도티다(←돋다)

文身은 모매 文 도틸 씨오 (法華 5:14)

새 벼리 나지 도드니 (龍歌 101章)

· 무티다(←묻다)

네 어디로몬 비치 무티건 디 오라니 (初杜解 23:39)

썩를 주서 물즈보려 흥노라 (三綱. 忠27)

· 안치다(←앉다)

世尊이 방석 주어 안치시니라 (釋譜 6:20)

불근 새 그를 므러 寢室 이페 안즈니 (龍歌 7章)

· 자피다(←잡다)

門을 자피 막주르시니 (月印 上16)

곧 자바 미초물 일우느니라 (六祖 中6)

위의 예를 살펴보면 사동접미사 ‘-히-’가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 동사어간의 말음과 ‘ㅎ’이 결합되어 격음의 형태를 만든다. 이는 형태가 같은 피동접미사에서 나타나는데, 피동접미사 ‘-히-’도 사동접미사 ‘-히-’와 같이 어간의 말음이 무성자음으로 끝날 때 격음의 형태를 나타낸다.

③ 사동접미사 ‘-기-’

· 맞기다(←맞다)

뜨르레 주마 것 맞기고 (救簡 1:10)

그 모미 길오 크며 맞고 검고 여원 거시 (法華 2:120)

· 빗기다(←빚다)

몬져 얼뫼 춤비소로 빗기고 (飜朴 上44)

머리 헤혀 얼애비소로 비소라 (飜朴 上44)

· 싯기다¹⁷⁾(←싯다)

긱야기 싯기기 뫼고 (飜朴 上56)

내 늦 시서지라 (번로 上61)

· 읊기다(←읊다)

네 업던 돌홀 帝釋이 읊겨 오니 (月印 上38)

그 안 믅스미 조차 읊느니 (金三 3:24)

17) 고영근(1995 : 131~61), 「단어·문장·텍스트」, 한국문화사. ‘싯기다’는 사동사와 피동사로 공용되는 것으로 ‘자피다, 들이다(入), 들이다(聞), 디다(落), 뵈다(見)’ 등이 있는데 이런 파생동사를 능격동사로 보기도 한다.

위의 예를 통해서 사동접미사 ‘-기-’는 어기 말음이 ‘ㄱ, ㅅ’일 경우에 결합됨을 알 수 있다. 어기 말음이 ‘ㄹ’일 때도 ‘-기-’가 연결되는데 이것은 중자음 중 끝 자음이 사동접사를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아진다.

(①~③)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동접미사 ‘-이-’계인 ‘-이-, -히-, -기-’는 음운론 조건에 따른 서로 상보적 분포를 갖는 변이형태임을 알 수 있다. 어기의 말음이 ‘ㄱ, ㄴ, ㅅ’이면 ‘-기-’가 결합되고, 어간말음이 격음이 될 수 있는 무성자음인 ‘ㄱ, ㄷ, ㅂ, ㅈ’이면 ‘-히-’가 그 외의 자음이면 ‘-이-’가 결합된다. ‘이 모음’을 제외한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는 ‘-ㅣ-’가 결합된다.

④ 사동접미사 ‘-오/우-’계

사동접미사 ‘-오/우-’계는 ‘-이-’계와 같이 ‘-오/우-’, ‘-호/후-’, ‘-고-’의 이형태를 갖고 있다.

· 도도다(←돋다)

벼스를 도도시니 (龍歌 85章)

흔 빚 아니 돋느니라 (南明 下32)

· 일오다(←일다)

客塵 두 字 아로물브터 菓를 일오이다 (楞解 1:105)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龍歌 2章)

· 킷오다(←퓌다)

腦兒酒 다솻 통을 킷오더라 (飜朴 上3)

公이 祿俸 토크 적디 아니호되 (宣賜內訓 3:63)

· 꿩우다(←꿩다)

香 휘우고 겨르르이 이셔 (楞解 7:6)
터럭마다 블와 늑왜 휘며 (月釋 7:35)

· 히오다(←하다)

十八億萬을 降服 히오샤(釋譜 11:29)

흐르웃 두면 臣子 | 흐릿 所任을 다 흐간디니 (三綱. 忠 24)

사동접미사 ‘-오/우-’계는 동사와 결합하여 사동을 나타내는 기능을 갖는다. 이 사동접미사 ‘-오/우-’계는 어기의 발음이 자음일 경우 그대로 연결되어 쓰이나 어기의 발음이 모음일 경우 모음조화에 따라 ‘-오-’와 ‘-우-’가 서로 상보적으로 분포를 이뤄 나타난다.

어기의 발모음이 양성이면 ‘-오-’가, 음성이면 ‘-우-’가 결합되는 음운론적 제약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사동접미사 ‘-오/우-’의 특징은 어기의 발음이 ‘ㄴ’일 때는 반드시 분절되어 쓰였고 ‘ㄹ’모음 아래 쓰였을 때는 앞 모음과 결합되어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사동접미사 ‘-이-’와 다른 점이다. 또한 ‘-오/우-’는 ‘티오-, 픽오-, 히오-’처럼 이미 사동접미사가 첨가된 어간에 다시 덧붙는 경우가 있는데 ‘-히-’나 ‘-기-’ 아래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⑤ 사동접미사 ‘-호/후-’

· ㄹ초다(←긔다)

긔구를 ㄹ초라 흐더라 (宣小 6:81)

형더기 이어 긔 다드라 ㄹ즈니라 (月釋 2:61)

· 나토다(←날다)

神通力을 나토샤 (月釋 1:6)

密因 긔 아니면 나다나디 아니흐리며 (楞解 1:8)

· 머추다(←머뚎다)

兵馬를 머추어시니 (龍歌 54장)

구즌 비 머저 가고 시넨들이 몹아 온다

사동접미사 ‘-호/후-’는 앞에서 살펴본 사동접미사 ‘-히-’ 같이 무성 자음 중 ‘ㄷ, ㅈ’에 결합되어 격음을 만들고 있다. 그리고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 모음 조화에 따라 어간의 말모음이 양성 모음일 때 ‘-호-’가, 음성 모음일 때 ‘-후’가 결합하여 나타난다.

⑥ 사동접미사 ‘-고-’

· 솟고다(←솟다)

피 곳티 우리 虛空에 솟고고 셤 머리를 회도로노라 (重杜解 14:9)

바를 우희 金塔이 소스니 (龍歌 83章)

사동접미사 ‘-고-’는 특이한 형태로 ‘ㅅ’ 뒤에만 결합되는데 그 예가 매우 드물다.

⑦ 사동접미사 ‘-으/으-’계

· 사르다(←살다)

나랏 小民을 사르시리잇가 (龍歌 52章)

이 짜해 精舍 이르스불 쩌도 이 개야미 이에서 사더니 (釋譜 6:37)

· 도르다(←돌다)

흔 프리 곳다운 디 비를 도르놋다 (初杜解 8:5)

흔 번도 아니 도라닐 (月印 上55)

· 이르다(←일다)

須達이 이 精舍 이르습고 窟 밍글오 (釋譜 6:38)

天上에 가져다가 塔 일어 供養하라 (釋譜 23:7)

사동접미사 ‘-으/으-’계는 중세국어에 특이한 형태의 접미사이다. ‘도르다, 니르다’등과 같은 어기의 끝 자음이 ‘ㄹ’인 동사에 결합됨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형태는 매개 모음 ‘-으/으-’와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접미사 ‘-으/으-’가 붙어 의미상 사동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구별할 수 있다.

나. 피동접미사

피동접미사를 통하여 피동사를 형성할 경우 통사구조를 변화시키면서 그 문장에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힘을 입어서 되는 행동’라는 의미를 첨가 시킨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피동접미사에는 ‘-이-’계인 ‘-이-, -히-, -기-’의 세 가지의 이형태가 나타난다.

① 피동접미사 ‘-이-’

· 들이다(←듣다)

일후미 너비 들여 (釋譜 13:4)

귀에 도흐 소리 듣고져 흐며 (月釋 1:32)

· 브리이다(←브리다)

籠엿 브리엿 돈노물 늘거 니부니 (初杜解 21:18)

조흔 덩 글히여 브려셔 (飜老 上 17)

· 블리다(←브르다)

나라새 어즈러비 젓어미 블리디 마르쇼셔 (釋譜 11:33)

흐늘을 우러러 크게 브르고

· 붓이다(←붓다)

프리 어느 方을브터 이에 흘러 붓이노 (楞解 3:80)

如來入 甞바기에 다 브스시고 (楞解 1:95)

· 슬이다(←슬다)

브레 슬여 橫死 홀씨오 (釋譜 9:37)

모던 노를 스라 주기고 (釋譜 24:18)

· 이어이다(←이어다)

乾坤入 이어이는 안히로다 (初杜解 21:31)

뫼디 아니흐며 이어디 아니흐야 (金剛 131)

· 띠이다(←띠다)

체석손디 띠여느니라 (釋譜 13:9)

神通力으로 모글 구디 띠니 (月印 上18)

· 쥐이다(←쥐다)

왕이 위엄이 업서 늑 손내 쥐여 이시며(月釋 2:11)

四肢 츠고 두 소니 쥐오 (救急 上 15)

위에서 살펴본 예들은 피동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파생된 피동사이다. ‘슬다, 붓이다’는 동사어간에 ‘르,入’ 받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어적기가 되면서 후두음이 없혔다. ‘글이다, 블리다’는 동사의 어간이 ‘르/르’로 끝났기 때문에 끊어적기가 되면서 후두음이 없히거나 ‘르르’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피동접미사 ‘-이-’는 사동접미사와 형태가 같아 구별이 쉽지 않으나 앞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피동접미사 ‘-이-’는 ‘-이-’형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ㅣ모음 하’에서 나타난다.¹⁸⁾ ‘ㅣ모음 아래’라는 조건 하에서 ‘-이-’형태가 아닌 ‘-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접미사 ‘-이-’와 ‘-이-’는 같은 형태소로 볼 수 있다.

18) 허웅(1975 : 181-182) ‘입음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 ‘-이-’를 긴장 흡소리(tense vowel)로 보아 ‘-이-’로 표기되었다고 하였다.

② 피동접미사 ‘-히-’

· 고치다(←꽃다)

프른 뿔부리는 雕刻흔 집물리 고쳇도다(初杜解 16:42)

열다스시어든 빈혀 고즈며 (宣賜內訓 3:3)

· 다티다(←달다)

거믄 고애 다티더니라 (初杜解 10:4)

이 덤에 다 문 다드면 (飜老 上33)

· 무티다(←묻다)

딛겨 무터슈메 날드리 든놏다(初杜解 8:64)

홀기 무두르로 (月釋 18:40)

· 얼키다(←엷다)

어려운 이리 모매 얼컷느니라 (初杜解 16:28)

이 네 얼구를 브터 (楞解 4:81)

위의 예를 통해 보면 피동접미사 ‘-히-’가 결합하는 선행 동사 어간의 말음이 무성자음으로 끝나고 있다. 피동접미사 ‘-히-’는 대체로 어간말음이 무성자음이 ‘ㄱ, ㄷ, ㅂ, ㅈ’으로 끝날 경우 ‘ㅋ, ㅌ, ㅍ, ㅊ’으로 유기음화 되어 나타난다.

③ 피동접미사 ‘-기-’

· 담기다(←담다)

가스매 칙칙기 어즈러이 담겨세라 (初杜解 15:3)

모맷 필 퇴화 그르세 담아 男女를 내스 븃니 (月印 上 2)

- 씻기다(←씻다)
 물 씻교물 보니(初杜解 15:27)
 우리 드틀 떡를 시스쇼셔 (楞解 4:76)

- 습기다(←습다)
 몫되의 양지 습교매 나사 가리로다(初杜解 8:12)
 물애 슬마 도흔 飲食 밍글오져 (楞解 1:81)

피동접미사 ‘-기-’는 어기 말음이 ‘口, 入’일 경우에만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사동접미사 ‘-기-’가 쓰이는 음운론적 조건과 공통되는 점이다. 피동접미사 ‘-기-’는 무성음 아래서, 유성음 아래서 모두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극히 한정된 받침 아래서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③)에서 살펴본 바를 따르면 피동접미사는 ‘-이-’를 기본형으로 삼고 선행하는 동사어간의 말모음에 따라 이형태 ‘-이-, -히-, -기-’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피동접미사 ‘-이-’는 ‘이’로 끝난 모음어간과 무성자음에 결합하고 피동접미사 ‘-히-’는 ‘ㄱ, ㄷ, ㅂ, ㅈ’과 같이 ‘ㅎ’과 결합하여 유기음이 될 수 있는 무성자음어간에 결합하며 ‘-기-’는 ‘口, ㄹ口’으로 끝난 자음어간과 결합한다.

(2) 명사 + 접미사 ‘-ㅎ-’

- 노릇ㅎ다(노릇+ -ㅎ-) : 노릇ㅎ던 이룰 스랑ㅎ노라 (初杜解 25:5)
- 말ㅎ다(말+ -ㅎ-) : 즈조 말ㅎ는 저비는 새 기슬 一定ㅎ엿도다 (楞解 1:23)
- 시름ㅎ다(시름+ -ㅎ-) : 떡 무든 옷 넙고 시름ㅎ야 잇더니 (釋譜 6:27)
- 이바디ㅎ다(이바디+ -ㅎ-) : 노픈 이바디ㅎ야 (初杜解 20:3)
- 일ㅎ다(일+ -ㅎ-) : 힘서 戌行을 일ㅎ라 (初杜解 8:68)
- 절ㅎ다(절+ -ㅎ-) : 머리서 보고 쑈 부러 가 절ㅎ고 (釋譜 19:30)
- 스랑ㅎ다(스랑+ -ㅎ-) : 오직 내 지조를 스랑ㅎ놋다 (初杜解 7:34)
- 싱각ㅎ다(싱각+ -ㅎ-) : 長常이 이룰 싱각ㅎ라 (月釋 8:8)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사에 접미사 ‘-ㅎ-’가 붙어 파생된 동사는 어기가 한자어인 경우와 고유어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어기가 한자어인 경우는 다시 한자어 명사에 접미사 ‘-ㅎ-’가 결합 된 것과 한자어 동사에 접미사 ‘-ㅎ-’가 결합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하다, 절하다’의 경우 한자어 어기들이 차용명사로 당시 국어에서 하나의 명사로 굳어져 ‘목적어+타동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3) 부사 + 접미사 ‘-ㅎ-’

- 다하다(다+ -ㅎ-) : 四十一心을 다하고 (楞解 8:40)
- 더하다(더+ -ㅎ-) : 모던 龍이 怒를 더하니 (月印 上37)
- 못하다(못+ -ㅎ-) : 흰 白象만 못하고 (月釋 2:38)
- 아니하다(아니+ -ㅎ-) : 이제 그러티 아니커니쑤 (楞解 1:68)
- 잘하다(잘+ -ㅎ-) : 才는 말 잘하느 지죄라 (楞解 1:4)

부사에 접미사 ‘-ㅎ-’가 붙어 파생된 동사는 ‘-ㅎ-’가 타동사의 성격을 벗어나 접미사로 기능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사실 ‘목적어+타동사’의 구조를 갖는 ‘명사어기+ -ㅎ-’의 경우 ‘-ㅎ-’는 파생접미사라기 보다 타동사에 가깝다. 그러나 ‘부사+ -ㅎ-’의 경우 접미사 ‘-ㅎ-’가 여기에 동사성 어휘자질을 첨가시키고 그 파생어의 통사적 기능을 변화시키므로 파생접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¹⁹⁾

3. 형용사 파생법

중세 국어에서 접미사에 의한 형용사 파생법도 어휘적 파생법과 통사적 파생법이 모두 나타난다. 중세 국어의 형용사 파생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9) 송철의 (1993 : 46)

1) 어휘적 파생법

(1) 형용사 + 접미사 ‘-갑/겹-’

· 넢갑다(←넢다)

넢갑고 열븐 사르미(月釋 18:43)

그 프리 기프며 넢툭 업스를 알리로다 (永嘉 下60)

· 눗갑다(←눗다)

눗갑고 저고물(初杜解 10:7)

庶士 : 벼슬 눗즌 사름이라 (宣小 4:46)

· 맛갑다(←맛다)

이 東山이 甚히 맛갑다(釋譜 6:24)

위의 예들은 형용사어근에 접미사 ‘-갑/겹-’이 붙어 다시 형용사로 파생되었다. ‘넢갑다’는 ‘넢-’에 접미사 ‘-갑-’이, ‘눗갑다’는 ‘눗-’에 ‘-갑-’이, ‘맛갑다’는 ‘맛-’에 ‘-갑-’이 각각 붙어 파생어를 형성한 것이다. 접미사 ‘-갑/겹-’은 형용사에 결합하지만 별다른 의미 자질은 부여하지 않는다.

2) 통사적 파생법

(1) 명사 + 접미사 ‘-갑/겹-’

· 늘갑다(늘ㅎ+ -갑-)

다리굽고 늘갑더니 (釋譜 6:32)

딛고 늘갑다 ㅎ샤 (法華 1:130)

이 접미사 ‘-갑/겉-’이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기도 하는데 극히 드물다. 현대국어에서도 명사에 직접 ‘-갑-’이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경우는 없다.²⁰⁾ 여기에 첨가하는 의미자질은 없지만 명사에 결합될 때는 명사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의 상태를 나타낸다.

(2) 명사 + 접미사 ‘-답(답)/릅(릅)-’

명사에 접미사 ‘-답(답)/릅(릅)-’이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 곳답다(곳+ -답-) : 冉冉히 곳답도다 (初杜解 7:2)
- 시름답다(시름+ -답-) : 시름다분 이리 다와댓거든 (釋譜 9:8)
- 시름답다(시름+ -답-) : 시름드윈 막스미 던논듯 (初杜解 15:39)
- 의심답다(의심+ -답-) : 아니신가 疑心답거신 마른 (法華 5:135)
- 의심드빚다(의심+ 드빚) : 疑心드빚 고디 잇거든 (月釋 1:20)
- 수고르빚다(수고+ 르빚) : 즐거부미 업슬저기 설불시다 受苦르빚니라 (月釋 7:43)

접미사 ‘-답(답)-, -릅(릅)-’은 주로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이들의 음운론적 환경을 보면 접미사 ‘-답-’은 자음으로 끝난 어근 아래 쓰이고 ‘겨르릅다, 새릅다’에 나타나는 ‘릅-’은 모음이나 ‘르’로 끝난 어근 아래에 나타난다. ‘겨르릅다’는 ‘겨를’에 ‘-릅-’이 붙은 것인데 ‘르’가 탈락된 것이다. 한편 ‘-답-/-릅-’은 ‘의심드빚니, 수고르빚요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모음을 취하는 어미 ‘-니’나 모음어미 ‘-음’ 앞에서는 ‘-드빚-/-르빚-’로 교체되기도 한다.

접미사 ‘-답-’은 ‘곳답다’에서처럼 ‘-답-’의 형태로 나타나며 ‘시름답다, 시름답다’처럼 수의적 교체를 이루기도 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음운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별개의 형태소처럼 보이거나 자음 아래 연결되고 동일한 의미범주를 지니므로 ‘-답다’와 ‘-답다’는 ‘·’ 음의 유동에서 온 수의적 교체로 볼 수 있다. ‘-릅

20) 현대국어에서 명사와 ‘-갑-’이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는 없으나, ‘차갑다’와 같이 형용사의 어간에 결합하여 다시 형용사를 파생시키기도 한다.

다’ 또한 ‘새롭다’에서처럼 ‘-롭다’로 파생되는데 이렇게 수의적으로 교체 표기될 수 있는 것은 16세기 초에 이르러 일반화되었다.

접미사 ‘-듭-’과 ‘-롭-’은 서로 다른 음운론적 환경에서 상보적인 분포를 이루는 동일형태소에 속하는 음운론적 이형태로 볼 수 있으나 다소 결합조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의 성격이나 여기의 문법범주 상에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 부여하는 의미 자질에도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접미사 ‘-듭-’과 ‘-롭-’이 결합될 수 있는 여기의 성격을 보면, ‘추상명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롭-’은 추상성을 띤 비실체성 명사와만 결합하는 한정성을 보인다면 ‘-듭-’은 꽃(花)과 같은 실체성 명사와도 결합한다.

그리고 ‘-듭-’의 경우는 관형사를 어기로 한 파생을 보이지 않으나 ‘-롭-’은 관형사를 어기로 한 파생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듭-’은 ‘~와 같다’의 유사성을 띠나 ‘-롭-’의 경우는 선행어기의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관형사 + 접미사 ‘-롭-’

- 외롭다(외+ -롭-)

외롭고 더러워 그땃 아스물 더레요니(初杜解 23:53)

외롭고 입게 디외야 인생 즈거본 뜬디 업고(釋譜 6:5)

관형사 ‘외’에 접미사 ‘-듭-’의 이형태인 ‘-롭-’이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현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서 ‘외’는 자립형태소이며 하나의 단어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²¹⁾

(4) 동사 + 접미사 ‘-브/브-’

접미사 ‘-브/브-’가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21) 외(獨) : 여스슨 외 바랫 두 머린 觀이니 (圓覺下二之二21)

· 곱뜨다(꺠+-브-)

꺠뜨 빅 브르면 (月釋 8:100)

念을 니르완다 아니하려 빅 꺠뜨며 치우믈 어엿비 너기며 (宣賜內訓 2:15)

· 깃뜨다(긱+-브-)

禧는 깃뜨시니(釋譜 9:6)

큰 德을 스랑흐스바 놀애를 불러 깃뜨히더니 (月印 上9)

· 꺠뜨다(꺠+-브-)

꺠뜨며 受若 ㄹ외요믈 닐오디 (初杜解 16:71)

그제 ㄹ장 꺠뜨흔 사르미 ㄹ숨에 ㄹ장 깃겨 (月釋 14:77)

· 슬뜨다(슬+-브-)

더 말도 슬뜨실씨 (月釋 8:81)

울며 슬히 부덧기 슬브샤디 (釋譜 11:8)

· 알뜨다(알+-브-)

뽏는 몸 알뜨씨오(月釋 2:22)

가슴 알뜨미 흰호믈 쏘 아로니 (初杜解 2:23)

· 웃뜨다 (웃+-브-)

오늘 나래 내내 웃뜨리 (龍歌 16章)

太子 | 웃뜨며 닐오디 (釋譜 6:24)

접미사 ‘-브/브-’가 동사 어간에 붙어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실현양상이 다양하다.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동사의 어간의 말음이 자음인 경우 접미사 ‘-브-/브-’ 이 둘 모두 접미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동사 어간의 받침이 ‘ㄹㅎ’인 겹자음으로 끝날 경우 ‘ㅎ’은 뒤에 결합하는 접미사 ‘-브/브-’

와 연음되어 유기음인 ‘-ㅍ/프-’로 나타난다.

접미사 ‘-브/브-’가 동사 어근과 결합할 때는 어간의 의미에 어떤 상태나 느낌을 첨가하는 구실을 한다. 이는 접미사 ‘-압/업-’과 같은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믿브다 : 미답다’²²⁾ 예처럼 같은 용언에 이 두 접미사가 병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두 접미사는 비록 동일한 형태소의 이형태는 아니지만 의미적 유사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상보적인 기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진다.

(5) 동사 + 접미사 ‘-압/업-’

접미사 ‘-압/업-’은 동사의 어간에 결합되어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동사의 어근과 결합할 때 접미사 ‘-압-’과 ‘-업-’은 모음조화법칙에 따라 적용되어 나타난다.

· 므겁다(므기-+-업-)

수우리 므겁고 (初杜解 8:27)

또 쵸고마 거슬 더 브티면 이 다스로 더욱 므거 인툃 흐니인 (月釋 21:106)

· 므श्यक다(므श्यक-+-업-)

엇데 므श्यक 양즈를 지스시느니잇고 (月釋 7:48)

범 므श्यक 시러 말 몬흐요라 (初杜解 21:39)

· 붓그럽다(붓그리-+-업-)

안흐로 므스매 붓그럽디 아니흐니여 (宣賜內訓 1:58)

小를붓그리고 大를 스랑흐니라 (釋譜 11:43)

· 앗갑다(앗기-+-압-)

大王의 앗가블 뿌디 업더시이다 (月釋 8:91)

22) 믿브다 : 믿부를 마귀오고 (楞解 1:20)

미답다 : 미터울 신 : 信 (類合 下3)

布施를 즐겨 밋는 거슬 앗기디 아니호야 (釋譜 9:13)

· 즐겁다(즐기-+-업-)

喜는 衆生을 즐겁게 흘씨라(釋譜 9:6)

낙된 즐기는 나를 아니 즐겨 聖經을 니르시니 (龍歌 92章)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접미사 ‘-압/업-’이 동사어간의 말음이 ‘ㄹ’받침을 가지거나 ‘ㅣ’모음으로 끝날 때 주로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운론적 환경, 접미사 ‘-압/업-’이 ‘ㄹ받침’이나 ‘ㅣ’ 모음 아래에서 ‘ㄱ’ 탈락이 탈락시켜 동사의 어간과 결합한다고 보면 접미사 ‘-갑/겉-’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앗갑다’의 경우는 ‘앗기-+-갑다>앗기압다>앗갑다>앗갑다’의 변화 과정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변화 과정은 가능하지만 오랜 시일을 걸친 것일 것이다. 그리고 ‘ㄱ’이 탈락된 변이형태는 항상 독립된 형태로 쓰이며 앞 음절의 자음과 연음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압/업-’은 ‘ㄱ’이 탈락된 ‘-갑/겉-’의 이형태가 아닌 독립된 접미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접미사 ‘-압/업-’은 접미사 ‘-갑/겉-’과 독립된 접미사로서 어기말음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어기말음이 모음일 경우는 모음조화에 따라 접미사 ‘-압/업-’이 결합된다. ‘므겁다, 앓갑다, 붓그럽다’ 등과 같이 므식엽다’와 같이 ‘ㅣ’모음이 탈락한 후에 결합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고 ‘므식엽다’와 처럼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 ‘y’ 모음이 삽입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접미사 ‘-압/업-’은 여기에 부여하는 의미 자질은 접미사 ‘-브/브-’와 동일하게 어떤 상태나 느낌을 첨가시키고 있다.

(6) 부사 + 접미사 ‘-호-’

부사에 접미사 ‘-호-’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 구즉호다(구즉+-호-) : 구즉호 江海예 (初杜解 24:40)

- 번득하다(번득+ -ㅎ-) : 눈간딤 번득히리라 (月釋 17:35)
- 아니하다(아니+ -ㅎ-) : 一切有情이 나와 다르디 아니케 호리라 (釋譜 9:4)
- 다복다복하다(다복다복+ -ㅎ-) : 다복다복하야 프른 지치 빛나고(初杜解 2:8)
- 물긷물긷하다(물긷물긷+ -ㅎ-) : 훈갓 잇비 믈스미 물갓물긷하니라(南明下71)
- 어른어른하다(어른어른+ -ㅎ-) : 어른어른하느 버듛 가지느 (初杜解 21:15)

부사에 접미사 ‘-ㅎ-’가 붙어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 여기 자체가 상태, 성질 정도 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의태부사나 상징부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의태부사나 상징부사에 접미사 ‘-ㅎ-’가 결합하여 형용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7) 불규칙적 어근 + 접미사 ‘-ㅎ-’

불규칙적 어근에 접미사 ‘-ㅎ-’가 붙어 형용사를 파생시킨다.

- 더러하다(더러+ -ㅎ-) : 至孝 | 더러히실씨(龍歌 92)
- 서늘하다(서늘+ -ㅎ-) : 홀른 아츰미 서늘히고(月釋 2:51)
- 식식하다(식식+ -ㅎ-) : 양즈이 식식하샤미 獅子 | ㄹㅌ시며 (月釋 2:57)
- 아득하다(아득+ -ㅎ-) : 恩愛를 머리 여희여 어즐코 아득하야 (釋譜 6:3)
- 어득하다(어득+ -ㅎ-) : 錦城은 히 어득하야 누르렛느니라(初杜解 7:10)
- 천천하다(천천+ -ㅎ-) : 鹿率은 들씨버 천천티 몬홀씨라(月釋 2:11)
- ㄹㅌ하다(ㄹㅌ+ -ㅎ-) : 돌해 ㄹㅌ하얏도다(初杜解 7:5)
- 느죽하다(느죽+ -ㅎ-) : 늦가온 가지옌 미즌 여르미 느죽히고(初杜解 15:7)
- 줌줍하다(줍줍+ -ㅎ-) : 各各 줍줍히시니라 (月釋 18:31)

여기가 단독으로 나타나지 않는 불규칙 어근에 접미사 ‘-ㅎ-’가 결합되어 형용사로 파생된 예들이다. 불규칙적 어근에 접미사 ‘-ㅎ-’가 붙어 형용사를 파생

시키는 경우 동사를 파생시키는 경우와 달리 형용사적 의미 자질은 여기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태나 성질과 같은 형용사적 의미 자질은 여기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며, 접미사 ‘-ㅎ-’는 아무 의미도 첨가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사어간에 접미사 ‘-ㅎ-’가 결합할 경우 어기의 행위를 나타내면서 어기와 문법적, 의미적 관계를 지니지만 형용사에 ‘-ㅎ-’가 결합할 때는 문법적 관계만 나타낼 뿐 형용사로서의 의미는 여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접미사 ‘-ㅎ-’는 단순히 통사론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형성된 ‘ㅎ다’형 형용사는 상태성 어근에 상태성 어근에 ‘-ㅎ-’가 첨가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첩어적 성격을 지녀 첩어를 형성할 가능성을 가진다.

4. 부사 파생법

1) 어휘적 파생법

- 고대(곧+ 애) : 고대 아랴샤 늣믄로 여희시니 (月印 上53)
- 나날로(나날+ 로) : 물러 나날로 行흘 바와 (宣賜內訓 1:16)
- 만실에(萬一+ 에) : 만실에 능히 論語 孟子入 가오너 기피 구호고(飜小 8:32)
- 못내(못+ -내) : 곡식에 못내 염근 거슬 머거 부르터 나거든 (救簡 2:76)
- 본딴로(본딴+ 로) : 내 열구른 본딴로 흠과 나모 곧토니 (初杜解 2:15)
- 즉시에(卽時+ 에) : 즉시에 슈보호야 (飜小 9:38)

위의 예들은 부사에 접미사가 붙어 다시 부사로 파생되었다. ‘못내’는 부정부사 ‘못’에 ‘-내’가 붙어 다시 부사가 되었다. ‘본딴로, 나날로’는 ‘본딴, 나날’이 부사로 쓰이는데 여기 다시 파생접사화한 도구의 부사격조사 ‘로’가 붙어 또 부사가 되었다. ‘고대’(즉시)는 부사 ‘곧’에 파생접사화한 처소의 부사격이 붙어 다시 부사가 되었다. ‘즉시에, 만실에’도 마찬가지이다.

2) 통사적 파생법

(1) 명사 + 접미사 ‘-이’

명사에 접미사 ‘-이’를 결합하여 부사로 파생시킨 예는 많지 않다.

- 겹겨비(겹겹+ -이) : 겹겨비 드위혜(法華 3:195)
- 낫나치(낫낫+ 이) : 낫나치 보물 7장 물긫물긫하야(月釋 8:8)

위의 예들은 단음절 명사의 반복형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부사로 파생된 것이다. 이와 같은 파생은 현대국어에서 흔히 쓰이며 이들은 ‘-마다’라는 의미를 여기에 첨가하고 있다.

(2) 명사 + 접미사 ‘-로’

- 날로(날+ 로) : 천량이 날로 적더니 (釋譜 23:64)
- 새로(새+ 로) : 새로 스물 여덟 字를 밍 7노니 (訓註3)
- 진실로(진실+ 로) : 다 眞實로 信하야 아로물 문 하느니 (釋譜 9:28)

접미사 ‘-로’는 조격조사 ‘-로’에서 유래된 것으로 명사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킨다.

(3) 명사 + 접미사 ‘-소(소)’

- 손소(손+ 소) : 부텃 소늘 손소 자브샤 (月釋 10:9)
- 몸소(몸+ 소) : 몸소 받 가디가 니러나물 (初杜解 6:34)

‘몸’과 ‘손’에 ‘-소(소)’가 결합되어 부사로 파생된 경우이다. 접미사 ‘-소’는 ‘-소’가 유성음 ‘ㄴ, ㄹ’ 아래서 유성음화 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또한 접미사 ‘-소/

소'는 신체나 신체의 일부를 나타내는 명사인 '몸'과 '손'에만 결합되기 때문에 어휘 선택에 있어서 다른 접미사에 비해 심한 제약성을 띤다. '자기 스스로'의 뜻을 지닌 것으로 보아 본래 어기의 뜻과는 다른 부사를 파생시킨다.

(4) 명사+ 접미사 '-리'

· 더리(더+ -리)

제 간을 더리 모를씨 (月印 上15)

더 수프레 잇는 그럭 올히와 (釋譜 3:32)

· 이리(이+ -리)

머리에 직 무티고 낙치 흙 무터 이리 오샤 (金三 2:49)

이 道士 | 精誠이 至誠 ㅎ단디면 (月釋 1:17)

이들은 각각 명사 '이, 더'에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켰다. '이리'는 '이리'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5) 관형사 + 접미사 '-로'

· 홀로(홀+ 로)

또 홀로 엇던 믱슴고 (翻小 9 :100)

홀로 안호로 믱음애 붓그럽디 아니 ㅎ랴 혼대 (宣小 6: 47)

'홀'이 관형사가 아닌 명사로 쓰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로' 접미사에 의한 부사 파생을 보면 그 어기가 되는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스스로, 절로'의 경우 '-로'가 결합되어 파생된 부사이지만 어기가 되는 '스스'나 '절'이 단독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새로'의 경우 '새'가 명사와 관형사로 쓰이면서 의미상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6) 동사 + 접미사 ‘-이’

동사어간에 접미사 ‘-이’가 붙어 부사를 파생시킨다. 이 경우 중세국어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폭넓게 나타난 현상이다.

· 거스리(←거슬다)

벗르시 거스리 부니(初杜解 7:16)

내 命을 거스스바늘 (龍歌 105章)

· 그우리(←그울다)

그우리 부러 가지 것 비쳐 (釋譜 6:30)

그 술위 절로 그우리 (月釋 1:26)

· 내(←나다)

모기며 입시우리 내 몰라 (月釋 9:50)

生死애 나게 호니 (楞解 9:119)

· 니기(←닉다)

智勇을 니기 아스바 (龍歌 59章)

豆子 | 비예 하마 닉도다 (初杜解 9:17)

· 니르리(←니르다)

欲界六天 니르리 다 뷔여 (月釋 1:48)

德 일우메 니르르샤사 (法華 1:44)

· 물리(←므르다)

흐븨샤 물리 조치샤 (龍歌 35章)

오직 낮고 물룬 업수미 (楞解 8:18)

· 미이(←미다)

미이 므로맨 느소슬거시 일^느니라 (初杜解 24:62)

열 슌가락 그틀 미오 침으^룩딜어 (救簡 2:47)

동사어기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파생될 때 어기가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서로 다른 음운현상을 보인다.

동사의 어간말음이 자음인 경우는 어간 말 자음이 접미사 ‘-이’에 이어져 소리가 나고, 어간 말음이 모음인 경우에는 접미사 ‘-이’가 독립음절로 유지되거나 ‘미이’ 앞음절 모음에 축약되어 이중 모음으로 나타난다.

‘물리’의 경우와 같이 밑말이 ‘으’로 끝나는 것은 이 접사가 붙을 때 ‘으’가 탈락하고 ‘-이’가 결합되면서 ‘리’이 덧붙여 나게 되어 ‘리리’의 설측음 표기로 나타나게 된다.

(7) 동사 + 접미사 ‘-오/우’

동사어간에 접미사 ‘-오/우’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킨다.

· 골오(고락+-오)

다 골오 ㄹ장 뒤운 쁘디(月釋 2:14)

· 마조(맞+-오)

부테 마조 나아 마즈샤 (釋譜 6:12)

내 쁘테 몰 마재이다 (月釋 8:97)

· 오으로(오을오+-오)

오으로 섯근거시 업서 淸白 헝고 (釋譜 13:28)

功이 일면 根마다 各各 뿌물 오을 올씨 (釋譜 19:10)

· 외오(외+ -오)

忠臣을 외오 주겨늘 (龍歌 106章)

이리 曲^ㅎ며 直^호미 이시며 말스미 올^ㅎ며 외요미 잇느니 (宣賜內訓 2:8)

· 즈조(좇+ -오)

즈조 듣즈한 마룬 (釋譜 6:11)

꺾은 나며 갓가^ㅂ며 즈준 ㅂ디라 (月釋 13:47)

· 너무(넘+-우)

아니 너무 섹르니여 (初杜解 8:67)

貪食이 衰病을 扶持^호미 넘도다 (初杜解 9:21)

· 님우(넛+-우)

님우 더우니로 ㄱ^롤디니 (救急 下35)

물 우희 님서티시나 (龍歌 44章)

· 비르수(비룻+-우)

비르수 알와라 (初杜解 7:23)

처섬 비룻느 거시 因^이오 (釋譜 13:41)

· 두루(두르+-우)

부테 여러 나라해 두루 들니샤 (釋譜 6:44)

너븐 하늘과 두른 짜해 (南明 上68)

접미사 ‘-오/우’가 동사어간과 결합할 때 어간의 말음이 자음인 경우 접미사 ‘-오/우’에 연결되어 나타나지만 모음일 경우 모음조화에 따라 실현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어기말음의 모음이 ‘으/으’로 끝났을 경우 접미사 ‘-오/우’보다 약모음이기 때문에 모음 ‘으/으’가 탈락한 후 결합하며, ‘ㅣ’모음으로 끝난 경우 ‘ㅣ’모음의 영

향을 받아 접미사 ‘-오/우’가 ‘-요/유’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나지 않고 그대로 ‘-오/우’의 형태로 나타난다. ‘골오’의 경우 어간이 ‘ㄹ’로 끝났기 때문에 끊어적기와 후두음이 없었으며, ‘넋우’의 경우 ‘ㅅ불규칙동사’의 어간이므로 ‘골오’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8) 동사 + 접미사 ‘-아/어’

동사어간에 접미사 ‘-아/어’가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킨다. 동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 ‘-아/어’는 용언의 활용형 어미 ‘-아/어’가 파생 접미사화 한 것으로 보인다.

· 느외야(느외+야)

느외야 현마 모던 罪業을 짓디 아나흐리니(釋譜 9:31)

이에 세 번 느외올띠니라 (法華 5:206)

· 다(다으+아) :

단 구디 즘겨 췌더시니 (釋譜 6:2)

天命이 다아 갈씨 (龍歌 84章)

· 츄마(츄+ -아)

아스물 츄마 서르 브리리아(初杜解 8:60)

니브리 비록 허나 그로물 츄디 묻더시니 (宣賜內訓 2:101)

· 구퇴여(구퇴+-어)

이런 모던 사르물 구퇴여 묻디 말라 (月釋 22:65)

父兄들히 구퇴대 (宣賜內訓 3:47)

· 더(더으+어)

금을 더 내디 말라 (釋譜 6:26)

너희 一心으로 法을 流布하야 너비 더으게 하라 (月釋 18:15)

· 더브러(더블+어)

畚 사르를 더브러 고기와 보리 밀 잇눗디 나사가 (初杜解 25:40)

당당이 젓 먹는 아드를 더브렛도다 (初杜解 12:25)

위의 예들을 살펴보면 접미사 ‘-아/어’는 음운론적 이형태임을 알 수 있다. 접미사 ‘-아/어’가 결합되어 부사로 파생되는 경우 어기 말음이 자음일 때는 연결되어 나타나고 모음일 경우는 ‘다, 더’와 같이 어간의 말음이 약모음인 ‘으, 으’일 경우 탈락되어 결합하거나 ‘구티여, 느외야’와 같이 ‘y모음’이 영향을 주어 ‘-야/여’의 형태로 나타난다.

(9) 동사어기 + 접미사 ‘-옥/옥’

· 더옥(더으--+옥) : 더옥 해류리라 (初杜解 20:23)

· 더옥(더으--+옥) : 須達이 그말 듣고 더옥 깃거 다시 의드라 (釋譜 6:20)

동사어간에 접미사 ‘-옥/옥’이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시켰다. 동사 어간의 모음 ‘으, 으’은 상대적으로 모음 ‘오, 우’보다 약하기 때문에 탈락하고 난 뒤 결합한다.

(10) 형용사어간 + 접미사 ‘-이’

형태론적 측면에서 중세국어의 부사 형성 접미사 ‘-이’는 거의 모든 형용사와 결합되어 쓰일 수 있었다.

형용사에서 부사를 파생하는 단어는 대부분 접미사 ‘-이’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 접미사가 형용사 어기에 가장 폭넓게 올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① 자음 아래서

형용사의 어간 말음이 자음으로 끝난 경우에는 어간 말 자음이 그대로 접미사 ‘-이’에 이어져 소리가 난다.

· 고디(←곶다)

부텃 마를 고디 드르라(釋譜 13:47)

고히 곶고 누니 빗도다 (金三 2:11)

· 기리(←길다)

苦藥을 기리 여희리이다(釋譜 11:3)

웁 너르메 草木 | 길어늘 (初杜解 2:30)

· 기피(←깊다)

기피 들씨라 (初杜解 10:41)

어미 몬보아 시름 깊거다 (月釋 8:87)

· ᄆ느리(←ᄆ늘다)

ᄆ느리 모새 슝차 (初杜解 7:20)

슝가라기 ᄆ늘오 기르시며 (月釋 2:40)

· 너비(←넙다)

衆生을 너비 濟度히시느니(釋譜 序1)

本來入 心量이 너브며 쿠미 이 근호플 알씨 (楞解 3:110)

· 도히(←똥다)

부텃 功夫에 도히 올라가새 (釋譜 9:31)

도흔 비 時節을 아니 보플 當히야 (初杜解 12:24)

· 머리(←떨다)

恩愛를 머리 여희여 어즐코 아득흐야 (釋譜 6:3)

送葬이 밧바 길 떨오 저믄 아히 드려오노라 흐야 (宣賜內訓 3:35)

· 물기(←뭍다)

넛더레 브르미 물기 부눗다(初杜解 7:29)

물근 겨우루 ㄴ드야 여러 가짓 양즈를 잘 나톨 씨라 (月釋 1:34)

· 불기(←볶다)

도로 불기 시스니라 (初杜解 8:17)

불고들 發흐야 불곰 더우미오 (永嘉 上75)

· 업시(←없다)²³⁾

돈 업시 帝理예 살오(初杜解 20:37)

② 모음아래서

형용사의 어간 말음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는 앞음절의 모음과 접미사 ‘-이’와 축약되거나 앞음절의 모음이 탈락된 후 접미사 ‘-이’가 연결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 달이(←다르다)

德用을 조차 달이 일궤를 썩르미라(月釋 18:17)

陰陽이 性이 다르고 男女ㅣ 헝더기 다르니 (宣賜內訓 2:7)

· 썰리(←썩르다)

썰리 몬 고티리로다(月釋 1:51)

썩른 비는 오란 病을 저지느다 (重杜解 2:13)

23) 고영근(1987:189). 형태상으로는 파생부사이지만 기능상으로는 굴절접사의 기능을 띠고 있다고 본다.

· 오래(←오라다)

오래 나그네 드외야 쇼미 당당이 우리 道 | 니 (初杜解 7:9)

젓스와 오라드록 몬 나오라 (重杜解 1:1)

· 즈래(←즈라다)

無量衆을 즈래 겻그니(月釋 7:25)

나히 흐마 즈라 더욱 窮困흐야 (月釋 13:7)

· 키(←크다)

大集은 키 모듈씨니(釋譜 6:46)

지블 배는 그 허므리 뭇 크니 다스시니 (宣賜內訓 1:29)

· 해(←하다)

해 드로물 브려(釋譜 9:13)

곶 도쿄 여름 하느니 (龍歌 2章)

③ ‘ㅂ’ 불규칙 형용사 아래

어간 말음이 ‘ㅂ’인 ‘ㅂ변칙형용사’의 경우는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파생어를 형성할 때는 ‘ㅂ’은 유성음 사이에서 /ㅃ/으로 변하거나 /ㅃ/이 탈락된 형태로 나타난다.

· 가빅야이(←가빅얏다)

히를 비추여 가빅야이 들여슈미 맞당흐도다 (初杜解 25:50)

비록 그 病이 가빅얏고도 (釋譜 9:35)

· 갓가빅(←갓갓다)

王이 맞드려 갓가빅 흐거시닐 (月釋 2:5)

그 지비 무더메 갓갓더니 (宣賜內訓 3:12)

· 고비(←굽다)

고비 너기면 당다이 제모미 더러브며 (月釋 7:18)

四百八夫人을 다 브르샤 점고 고브니로 여뵘 각시를 고히샤 (月釋 8:91)

· 더러이(←더럽다)

이제 지브란 외다 햐야 더러이 너기디 말라 (初杜解 15:5)

더러오되 더럽디 아니호므로 (楞解 1:88)

· 둔거이(←둔겁다)

모물 둔거이 아니호느니라 (初杜解 16:67)

기우디 아니호며 둔겁디 아니호며 (月釋 17:53)

· 수비(←쉽다)

막스문 수비 고티려니와 (月釋 1:51)

보미 쉽디 못호니라 (釋譜 23:13)

· 어려비(←어렵다)

讀誦을 어려비 너기거니와 (月釋 1:23)

信호미 어려운 기픈 經은 (楞解 1:3)

이와 같은 ‘ㅂ불규칙 형용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파생될 때 ‘ㅂ’은 ‘ㅂ>병>∅(탈락)’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ㅂ’이 탈락될 경우에 어기말 모음과 접미사 ‘-이’는 축약되지 않고 독립음절로 유지되고 있다.

④ ㅂ/브에 의한 파생 형용사

‘ㅂ/브’에 의한 파생 형용사를 어기로 한 파생부사의 경우도 접미사 ‘-이’와 연결되면 ‘으/으’가 탈락하고 ‘ㅂ’은 접사 ‘-이’에 연음된다.

· 깃비(←깃브다)

비를 깃비 누리와 (釋譜 13:7)

怒로 刑을 더으디 아니흐느니 깃브며 (宣賜內訓 2:103)

· 꺾비(←꺾브다)

막스문 저문 제브터 꺾비 흐노라 (初杜解 16:8)

즉자히 도로 니저 꺾블 썩니니 (釋譜 6:11)

· 슬피(←슬프다)

슬피 우는 나모 일흔 나비오 (初杜解 7:26)

그 모미 주거도 아디 몬호미 곤흐니 슬프다 (宣賜內訓 1:20)

· 어엿비(←어엿브다)

내 百姓 어엿비 너기샤 (龍歌 50章)

如來 닐오디 어엿브니라 흐시니 (楞解 9:38)

이들의 형태는 역시 2중 파생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사로 파생될 때 ‘으/으’가 탈락하는 이유를 현대국어의 경향에 맞춰 설명하면 현대국어에서 ‘으’는 모음 중 가장 잘 탈락하는 경향이 있어 두 모음이 만날 때 그 중의 하나가 ‘으’이면 반드시 ‘으’가 탈락한다. 이러한 경향은 중세국어에서도 동일함을 보여준다.

⑤ ‘흐다’형 형용사 아래

‘흐다’형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 ‘-이’가 결합되어 부사로 파생된 예는 다음과 같다.

· 마드기(←마득흐다)

倉庫 | 마드기 넘씨고 (釋譜 9:20)

血氣 마득흐더니 (楞解 2:5)

· 느죽이(←느죽하다)

느출 느즈기 하며 비출 느즈기 하야 (初杜解 2:48)

구루문 엄쳐 나조히 느죽호고 (初杜解 12:39)

· 만히(←만하다)

글도 만히 알며 (釋譜 6:12)

모던 뉘에 病이 만하며 (月釋 10:84)

· 서늘히(←서늘하다)

하늘 브르미 너를 서늘히 부는다 (初杜解 16:74)

서늘흔 딤조차 니기 즈오다가 (救急 上78)

· 아스라히(←아스라하다)

넷 프른 시우글 아스라히 스랑호노라 (初杜解 15:28)

범 마라인 막대논 소리 虛空에 아스라하니 (南明 上69)

· 츠기 (←측하다)

구퉁여 어려운 길홀 츠기 너기디 아니호노라 (初杜解 2:23)

이제 니르러 츄호미 잇느니 (初杜解 12:39)

· 훤히(←훤하다)

훤히 몸 알리를 맞나니 (初杜解 8:6)

쉬오물 기이핀니 므으미 훤히 훤하야라 (初杜解 2:9)

5. 조사 파생법

중세 국어에서 조사 파생법은 통사적 파생법만 확인된다.

· 두고

제 實엔 사오나보되 웃 사름두고 더은 양하야 (釋譜 9:14)

· 드려

쇼왕이 궁녀드려 일너 곶오되 (여四解 4:5)

날드려 니르샤되 (釋譜 序1)

· 브터

아래브터 믱숨애 아스보되(月印 상 39)

일로브터 子孫이 니스시니 (月釋 1:8)

· 호고

夫人도 목수미 열들호고 닐웨 기터 겨샷다 호시고 (月印 : 2:13)

위의 예들은 접사화한 ‘-어’와 ‘-고’를 붙여서 된 파생조사이다. ‘브터’는 ‘블-’에 ‘-어’가, ‘드려’는 ‘드리-’에 ‘-어’가 각각 붙어 형성되었다. ‘브터, 드려’는 앞에 격조사 ‘을, 로’를 앞세우기도 한다. 이는 중세국어에서 이들 형태가 아직 완전히 조사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세 국어에서 조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볼 수 있는 ‘-아’와 모음 조화에 따른 이형태로 ‘-어’가 있으며, 결국 ‘-아/어’에 의한 파생어는 동사의 활용형이 조사로 문법 요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에 의한 파생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 (이)나 : 값간이나 이베 내야리여 (宣賜內訓 1:48)

· (이)드록 : 썩른 브르미 부러 나지드록 어드윗도다 (重杜解 1:44)

· (이)어나 : 버미 쑹이어나 일희 쑹이어나 스톤 직를 ㄹ느리 ㄹ라 (救簡 6:6)

‘(이)나, (이)어나, (이)드록’은 어미가 접사화하여 파생조사가 된 것이다. ‘-(이)

나' 등은 서술격조사의 활용형이 굳어져 조사가 된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파생 조사는 서술격조사의 활용형과 모습이 같아서 구별이 어렵다. 활용형은 서술어로 기능하면서 주어를 취하는데 반해 파생조사는 그렇지 못하다.



IV. 영접사 파생

앞에서 실질적인 접사에 의한 파생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 보고자 하는 ‘영접사 파생법’은 ‘ㄴ물다, ㄴ물’처럼 어기와 파생어 사이에 형태상의 변화는 없지만 통사구조에서 다른 기능을 한다. 파생을 유발시키는 형태소가 없다고 보아 파생법으로 다루지 않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기와 파생어 간의 형태와 의미의 유사성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파생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또한 파생의 짝들 중 어느 것을 어기로 보고 어느 것을 파생어로 보느냐에 문제인데 언어발달 측면에서 명사와 동사 형용사의 어간이 동형일 때는 명사로부터 형용사 동사로 파생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영접사파생법에는 동사파생법, 형용사파생법 그리고 부사 파생법이 있다.

1. 동사 파생법

동사 파생법에 있어서 유형의 접사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접사를 취하지 않고 어기를 그대로 사용하여 동사를 파생시키는 방법이다. 영접사에 의한 동사 파생의 경우 명사어기에 무형의 접사가 결합되어 파생되는 경우만 나타난다.

1) 명사 + ∅접사

① ㄴ물다(← ㄴ물 : 阜)

그 스시에 올라 ㄴ므니 (初杜解 16:65)

ㄴ므래 아니 그츨씨 (龍歌 2章)

② 짓다(← 짓 : 巢)

깃기서 모다술 期約을 (初杜解 22:47)

즈조 와 말흐는 저비는 새 기슬 一定흐엿도다 (初杜解 7:1)

③ 낚다(← 낚 : 釣)

錦江엿 고기를 진실로 낚노라 (初杜解 22:13)

고기의 낚 避호미 곧흐야 (永嘉 下 77)

④ 너출다(← 너출 : 蔓)

災害엿 브리 너추리 (法華 2:134)

너추렛 여르미 나니 (月釋 1:43)

⑤ 빗다(← 빗 : 梳)

오늬 새배 내 머리를 비소라 (初杜解 22:1)

비세 하야히 비취엿더라 (初杜解 20:45)

이들은 명사가 어기인 동사 파생으로 보인다. 영접사파생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파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인데 명사를 어기로 잡는 경우 알타이 제어에선 기원적인 동사의 서술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명사형이 그대로 서술어로 쓰였고, 그것을 모든 동사의 기본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명사가 동사보다 선행하며 명사가 조사에 의한 어미변화를 하다가 활용어미까지 취하게 되는 형태론상의 확장으로 설명함으로써 기술의 간편성을 고려하여 명사에서 동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2. 형용사 파생법

형용사를 만드는데 접사를 취하지 않고 어기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다. 영접사에 의한 형용사 파생은 동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명사를 어기로 삼는다.

(1) 명사 + ∅접사

① 붉다(紅)(← 불 : 火)

손과 발왜 붉고 히샤미 蓮고지 마트시며 (月釋 2:57)

城 맞기 브리 비취여 (龍歌 69章)

② 희다(白)(← 희 : 日)

비치 희오 불구미 몹 頭腦 | 마트니라 (月釋 1:23)

흰 디여 가딕 그 지븐 光明이 비첼씨 (月釋 1:9)

위의 예들은 명사가 직접 형용사로 전용된 것이다. 즉 명사에 어미가 연결되어 형용사로 쓰인 것인데 여기와 파생어 사이에는 형태상의 변화 없이 의미상의 관련을 지니면서 통사 범주를 달리하고 있다.

3. 부사 파생법

영접사에 의한 파생부사는 명사나 동사, 형용사의 어간에 무형의 접사가 붙어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부사로 전용되어 나타난다.

(1) 명사 + ∅접사

① 마장 (부사) : 게으른 빠디 마장 기도다 (初杜解 7:6)

마장 (명사) : 그 나랏 마자온 낮마티 붉느나리 (月印 1:26)

② 거의 (부사) : 거의 가히 陵犯히리라 (初杜解 8:10)

거의 (명사) : 나흐싫 들 거의어늘 (月印 2:27)

③ 문져 (부사) : 筋骨을 문져 ㄹ고샤 (龍歌 14)

문져 (명사) : 어너 뉘 옷브미 문져를 알리오 (初杜解 6:37)

- ④ 이제 (부사) : 이제 쏘 내 아득을 드러가려 하시느니 (釋譜 6:5)
 이제 (명사) : 나히 저무매 이제 萬卷나모물 여럿도다 (初杜解 7:31)

- ⑤ 처섬 (부사) : 嚴威로 처섬 보새 (龍歌 78章)
 처섬 (명사) : 못 처서메 會中에 듣고 隨喜하니(月印 17:50)

위의 예에서 ‘ㄹ장’의 경우는 본래 명사였지만 지금은 부사로만 쓰이고 있는데 ‘거의~처섬’은 현대국어에서도 명사와 부사에 같이 쓰이고 있어서 그 구별은 통사론적 측면에서나 가능하다. ‘문져, 이제, 처섬’등은 시간 표현의 명사들이 시간 부사로 전용되었다.

(2) 동사+ ∅접사

동사의 어간이 독립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데 동사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서 단독형화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부사로 고정화된다.

- ① ㄹ리(← ㄹ리다)
 隱은 ㄹ리 두플씨니 (月印 1:35)
 더러본 아래 ㄹ린 거시 업게 드외니 (月印 上 25)

- ② ㄹ초(← ㄹ초다)²⁴⁾
 諍은 ㄹ초 니를씨라 (月印 1:21)
 棺을 ㄹ습고 풍류 ㄹ초야 (釋譜 23:24)

- ③ 고초(← 고초다)
 恨불로 高초 드디여 셔샤 부터 향ㅎ스바 손 고초샤 (月印 1:52)
 부터 向ㅎ스바 손 高초샤 밤낫 날웨를 김죽도 아니ㅎ샤 (月釋 1:52)

24) ‘ㄹ초, 고초, 마초’는 ‘ㄹ-, ㄹ-, ㅁ-’에 ‘-호’가 연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영접사에 의한 파생부사로 보았다.

④ 더디(← 더디다²⁵⁾)

거름거리 더디 아니 흐시며 (月印 2:57)

브터 오믹 더디요물 즈모 아노라 (重杜解 7:39)

⑤ 비룻(←비룻다)

일로부터 비룻 가리라 (初杜解 16:31)

거죽말 아니 호모로부터 비로솔디니라 (宣賜內訓 1:16)

⑥ 스몯(←스몯다)

光明이 스몯 비취샤 (釋譜 6:18)

물기 머리 마므니 스몯느니 (法華 3:78)

(3) 형용사어간 + ∅접사

형용사의 어간이 그대로 부사로 전용된 경우이다.

① 곧(← 곧다)

곧 여리느니 (龍歌 120章)

고히 곧고 누니 빛도다 (金三 2:11)

② 그르(← 그르다)

그르 아논 이를 마르쳐 고태시닐 (月釋 1:9)

時節 그른 브름비 難이어나 마몯 難이어나 흐거든 (釋譜 9:33)

③ 더딤(← 더딤다)

酒盞 자봄 더딤 호물 (初杜解 8:6)

25) '더딤다'는 '더디다'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결 어즈러운 된 히비치 더되도다 (初杜解 7:14)

④ 바르(← 바르다)

바르 드러 묻즈보되 (釋譜 6:20)

막스미 바르면 므슴 禪을 닷ᄃ료 하시니 (南明 上 18)

⑤ 비브르(← 비브르다)

비브르 들과라 (初杜解 7:14)

먹고 하마 비블언 모딘 막스미 더 盛호문 (法華 2:117)

⑥ 빗(← 빗다)

ᄃ마니 부는 브르맨 저비 빗 녹눗다 (初杜解 7:7)

고히 곧고 누니 빗도다 (金三 2:11)

⑦ 아니(← 아니다)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밀씨 (龍歌 2章)

이논 우리 허믈라 世尊스 다시 아니시다스이다 (法華 2:5)

⑧ 하(← 하다)

하 갖가브면 乞食하디 어렵고 (釋譜 6:23)

곳 도코 여름 하느니 (龍歌 2章)

지금까지 영접사에 의한 파생을 살펴 보았다. 영접사파생법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의 파생이 나타났으며 그 어기가 되는 것은 명사가 공통적이었고 부사 파생에는 어기가 명사 외에도 동사, 형용사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영접사에 의한 파생은 부사에서 가장 생산적인 것으로 보인다. 접사가 결합되지 않아서 파생의 범주에 넣기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한 단어가 지닌 의미가 음운의 변화에 의해 분화되어 새로운 단어를 생성 되었을 이렇게 생성된 대립의 짝들이 분명한 뜻을 지닌 다른 형태의 단어들이라면 단순한 의미 분화가 아닌 형태와 의

미에 따른 과생으로 봐야 할 것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중세의 문헌자료에 기록된 언어사실을 근거로 하여 공시론적 입장에서 파생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는 파생어의 형성과정 및 구조 파악 등의 작업을 통해 중세국어 파생어의 특성과 나아가서는 통시론적 관점에서 국어의 파생법 변천 과정을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문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접두파생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세국어에 있어서 접두파생법은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는 어휘적 파생법만 확인되는데, 접미사와 달리 접두사의 의미가 한자어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접두파생법에 의해 파생되는 품사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가 있다.

III장에서는 접미파생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접미파생법은 접두파생법과 달리 어근의 의미만 제한해 주는 어휘적 파생법만이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거나 통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통사적 파생법도 나타난다. 파생접미사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사 파생 접미사에는 명사를 어기로 명사를 만드는 ‘-질’, ‘-아지’, 동사를 어기로 명사를 파생하는 ‘-이’, ‘-음’, 형용사를 어기로 명사를 파생하는 ‘-이/의’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이, 음’ 등은 생산성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동사 파생 접미사에는 동사를 어기로 동사를 파생하는 ‘-받-’, ‘-티-’, ‘-히려(혀)-’, 명사나 부사를 어기로 동사를 파생하는 ‘-ㅎ-’가 있었다. 또한 동사를 어기로 동사를 파생하는 파생법에는 사동 및 피동 파생법도 활발하게 쓰였는데 이들은 어기의 조건에 따른 복잡한 이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형용사 파생 접미사에는 형용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갑/겁-’, 명사에서 형용사를 파생하는 ‘-듭-’, ‘-ㅎ-’, 동사를 어기로 형용사를 파생하는 ‘-브/브-’, ‘-압/업-’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듭-’이 비교적 생산성이 높았는데 어기의 조건에 따라 ‘-릅-’, ‘-드빔-’, ‘-르빔-’등의 이형태가 쓰였다.

넷째, 부사 파생 접미사에는 부사에서 부사를 파생하는 ‘-로’, ‘-애’, 명사를 어기로 부사를 파생하는 ‘-로’, 동사나 형용사에서 부사를 파생하는 ‘-이’ 등이 있

었다. '-이'는 생산성이 높아 많은 파생어를 만들어 내었을 뿐 아니라 활용 어미로 볼 수 있는 용법을 보이기도 했다.

다섯째, 조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는 '-아/어'는 동사의 활용형이 조사로 문법요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IV장에서는 영접사파생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기존에 '영변화파생'으로 다루었던 것을 접사에 의한 파생의 하나로 다루었다. 여기와 파생어가 형태가 같아 어느 것을 어기로 잡고 파생어로 잡느냐 하는 문제가 있으나 명사의 형태론적 특성이 동사에 유지되는 점으로 보아 명사에서 동사가 파생되었다고 보여진다. 영접사파생법에 의해 파생되는 품사에는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고영근(1987), 「표준 중세 국어 문법론」, 탐출판사.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국립국어연구원(1996),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연구1-중세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국립국어연구원(1997),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연구2-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김계곤(1996), 「현대국어의 조어법 연구」, 박이정.
김형배(1997), 「국어의 사동사 연구」, 박이정.
남광우(1962), 「국어학논문집」, 일우사.
남광우(1997), 「고어사전」, 교학사.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개정판)」, 탐출판사.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 국어 문법론」, 학연사.
양정호(1991), 「중세국어의 파생접미사 연구」, 국어연구회.
유창돈(1961),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유창돈(1971), 「語彙史研究」, 선명문화사.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 탐출판사.
이석주(1989), 「국어 형태론」, 한샘출판사.
이승녕(1961), 「中世國語文法」, 을유문화사.
최규일(2009), 「한국어 어휘형성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최범훈(1987), 「중세 국어 문법」, 이우출판사.
최현배(1961), 「우리 말본」, 정음사.
하치근(1989), 「국어 파생 형태론」, 南明문화사.
허 옹(1972), 「中世國語 研究」, 정음사.

2. 논문

- 강성일(1972), “중세국어 조어론 연구”, 「동아논총」 9, 동아대.

- 구본관(1996),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김종록(1990), “중세국어 부사형성 접사 ‘-이/히, -오/우’에 관한 연구,
「문학과 언어」 11, 문학과 언어 연구회.
- 김진형(1995), “중세국어 보조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 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 ‘-답-, -스럽-, -롭-,
-흐-’와 ‘-的’의 경우”,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 남광우(1975), “고대 국어 조어법의 한 고찰”, 「한글」 121, 한글학회.
- 박선우(1995), “15세기 국어 부사 연구”,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종태(1983), “16세기 국어 파생어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석미영(1993), “中世國語의 派生法 研究”, 경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환갑(1972), “접두사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철의(1977) “派生語 形成과 音韻現象”,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1983), “ 파생어 형성과 통시성의 문제”, 국어학 제12집, 국어학회.
- _____ (1990), “파생어형성에 있어서의 제약현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99권,
국어국문학회.
- 안병희(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이경우 (1981), “派生語 形成에 있어서의 意味變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정(1983), “15세기 부사형 어미 ‘게’ ‘-이’에 대하여”, 「국어교육」 44,
한국 국어교육 학회.
- 이종준(1991), “15世紀 國語接尾派生法 研究”,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학근(1981), “15세기 국어의 파생법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재남(1988), “영변화에 의한 어휘형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창규(1993), “15세기 국어 접미사 ‘이(ㅣ)’의 형태음운론적 연구”, 원광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하치근(1987), “국어 파생 형태론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 2, 동아대 어학연구소.
- 홍일섭(1983), “한국어 조어법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f Middle Korean Language Derivation

Kim Hyo-Ji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Kim, Tae-Gon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principles of the formation of a derivative targeted middle Korean language and set the type and reveal property so that it will contribute to systematic research about Korean language.

In this paper, a derivation by affix is limited to be studied among types of derivations. First, the types of derivatives are divided with derivation from derivational suffixes by prefix and derivation by zero affix. The suffixation was researched by being divided with lexical derivation and syntactic derivation, the former limits a meaning of radix by appending suffixes to radix, and the latter changed part of speech by attaching suffixes to radix or had impact on syntactic structure. And it wrote the list of derivational suffixes and derivatives, and identified structure of derivative and syntactically semantic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erivation affix, so that recogni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ase and derivative. It will be able to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iddle Korean language derivative and transition process of Korean language derivation through grasping the meaning of the changes between the base and the derivative, and formation process and structure of derivative etc. in addition to write lost of affix and derivativ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February, 2010.

The summary of the contents that was treat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In chapter II, the prefixation was recognized. The prefixation in Middle Korean language is only found as lexical derivation which limits meaning of radix. There is nouns, verbs, adjectives as the part of speech which is derived by prefixation.

In chapter III, the suffixation was recognized. As the suffixation, not only lexical derivation which limits only meaning of radix, but also syntactic derivation which change the part of speech of radix or has an effect on syntactic structure appeared. There are nouns, verbs, adjectives, adverbs, postposition as the part of speech which is derived by suffixation.

In chapter IV, the zero affix derivation was recognized. It is treated as one of derivation by affix about the thing which was treated as existing 'zero derivation.' There are verbs, adjectives, adverbs as the part of speech which is derived by zero affix derivation.

In chapter V, It is summarized the contents of main subject instead of conclusion.